

4대 그룹

하반기 2만3000명 신규 채용... 정부 '고용확대' 주문 화답

삼성·현대차 등 내달부터 공채 '반도체' 인력 확대 예상되지만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고심

삼성, 현대차, SK, LG 등 국내 4대 그룹이 올 하반기에만 2만3000명이 넘는 인력을 신규 채용한다. 이는 대체로 작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늘어난 규모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4대 그룹 각 계열사는 조만간 하반기 채용 규모를 확정하고 다음 달 말부터 공채 채용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그룹 및 각 계열사 인사팀과 경영진은 수시 채용과 별개로 하반기 실제 수요를 반영한 인력 수급 계획을 짜고 있다.

삼성그룹은 8월 말-9월 초, 현대차와 SK, LG는 9월경 하반기 공채에 돌입한다. 이들 그룹은 채용 규모를 예년 대비 늘리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고용 쇼크'에 빠진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는 까닭이다. 전장 바이오 등 신사업 분야에서 꾸준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것도 한 요인이다.

다만 대내외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필요 이상으로 무작정 채용 인원을 늘릴 수는 없어 그 규모를 고심하고 있다. 일단 삼성그룹은 하반기 6500명 이상의 인력을 채용할 것으로 보인다. 6000명 규모로 알려진 작년 하반기보다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 삼성그룹은 최근 몇 년간 9000~1만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해 왔는데, 올해는 1만~1만1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 초호황' 등에 힘입어 관련 부문 채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전체로 전년과 비슷한 1만 명 규모의 인력을 충원할 예정인

4대그룹 올해 예상 채용 규모

	하반기	올해 전체
삼성	6500명	1만 명 이상
현대차	6000명	1만 명
SK	5100명	8500명
LG	6000명	1만 명
합계	2만3600명	3만8500명

데, 하반기에는 6000명가량을 뽑을 것으로 관측된다. LG그룹은 지난해 말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나 올해 1만 명 정도 신규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SK그룹 역시 전년보다 300명 늘어난 올해 8500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보통 상·하반기 4:6 비율로 채용하는 것을 고려할 때, LG그룹은 하반기에 약 6000명, SK는 5100명을 뽑을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이들 그룹 인사 관계자들의 고민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4대 그룹 한 관계자는 "경영 환경은 계속 악화하고 있는데, 채용 인력을 늘리려니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핵심 수출 시장에서 언제 뇌관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확산되면 수출이 타격을 입고, 매출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 육박기를 통해 사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일자리 창출만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기업들이 신사업에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양질의 일자리가 저절로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록 기자 syr@**

G20 선도발언하는 김동연 부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해 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 선도 발언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4억→8.7억"... 공공임대 '분양 전환 폭탄'

10년 만에 감평평가 시세 급등 "공공택지 받았던 LH만 '로또' 분양 전환가 산정 개선해달라" LH 임대 입주민들 서명운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이 올해부터 본격화하면서 높아진 분양 전환가를 감당할 수 없는 입주민들이 단체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가 산정 방법을 고쳐 가격 부담을 덜어달라는 이들의 핵심 주장이 정부와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라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 아파트연합회'(이하 공공임대 연합회)는 정부의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 방법을 개선하라는 취지로 진행한 10만 인 서명운동을 이날 마치고 26일 국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가 산정에 관한 각계 입장

전국LH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5년 임대 동일 방식 또는 분양가상한제 준하는 방식 적용
국토교통부	임차인 협의 의무화, 분양 전환 어려운 임대 기간 연장, 분양 전환가 산정 방식 변경 불가
국회	- 5년 임대 동일 방식 적용(민중총동맹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분양가상한제 준하는 방식(윤종필 자유한국당·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 주택도시보증기금 활용해 분양 전환 용자(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분양 전환 시기를 앞둔 성남 판교 공공임대 아파트의 입주민 중심으로 구성됐다. 10년 공공임대는 LH나 민간 건설사가 공공 택지에 임대 아파트를 짓고 입주민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주는 시스템이다. 사업자는 매년 5% 이하로 임대료를 인상하고 감평평가액 이하로 분양 전환가를 산정해야 한다. 문제는 지난 10년간 아파트값이 크게 뛰면서 입주민이 감당할 수 없는 수

준에 올라서 있다는 점이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2009년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입주를 시작한 때 분양가가 면적 3.3㎡ 당 1000만 원 정도로 형성돼 있었으나 현재는 3000만 원을 달리고 있다. 실제 2009년 판교에 공공 분양한 붓달마을 4단지 전용 59㎡ 분양가가 2억4000만 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4월 판매된 가격은 8억7000만 원이다. 감평평가 시세의 9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전용 59㎡ 분양 전환 예상가는 7억 원에서 8억 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가 산정 방식은 5년 공공임대 방식으로 하거나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입주민들의 주장이다. 5년 공공임대의 경우는 건설원가·감평가액의 평균으로 분양 전환가를 산정하는 것인데 비싼 분양 전환가로 입주민이 쫓겨나면 그 집은 일반분양으로 자산가들의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퀄컴 '1조 과징금' 오늘 1차 변론

"한국기업 상대로 지위남용"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소송

1조 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퀄컴이 벌이는 소송이 23일 본격 시작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이날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첫 변론 기일을 연다. 재판부가 1월 2차 변론준비 기일을 열어 준비절차를 종결할 지 6개월 만이다.

이번 소송에는 애플, 인텔, 화웨이, 미디어텍 등 4개 업체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 공정위 편에 선다. 퀄컴과 공정위, 이들 4개 업체는 3-5월 각자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후 상대방 입장을 반박하는 서면을 냈다. 재판부는 제출된 서면을 검토한 뒤 1차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애초 삼성전지도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으나 2월 돌연 퀄컴과 합의한 후 소송에서 발을 뺐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퀄컴과 글로벌 특허권 상호 사용 협약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퀄컴과 공정위 간 행정소송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보조참가는 소송 결과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소송절차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예외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사건의

쟁점에 관심이 쏠린다. 퀄컴과 공정위는 △퀄컴이 실제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는지 △과징금 부과 절차가 정당했는지 △공정위가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등 3가지 쟁점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그중 최대 쟁점은 공정위 처분의 주요 근거가 된 '퀄컴이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는지'다. 퀄컴은 이동통신 분야에서 2만5000여 개의 '표준필수 특허(SEP)'를 보유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다. 표준필수특허란 해당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 제품 제조와 판매가 불가능한 기술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표준필수 특허를 가진 사업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 조건으로 특허를 개방해야 한다. 이를 '프랜드(FRAND) 협약'이라고 한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퀄컴이 휴대폰 제조사에만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칩셋 제조사를 배제해 프랜드 협약을 위반했다고 보고 1조3000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모범 칩셋사와 특허권 계약 협상에 성실히 응할 것 △모범 칩셋을 불모로 특허권 계약 강요 금지 △휴대폰 제조사와 특허권 계약 시 부당한 계약조건 강요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퀄컴은 공정위 처분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박미선 기자 only@**

"광고할 바엔 수수료 깎아라" '최저임금' 불똥 맞은 카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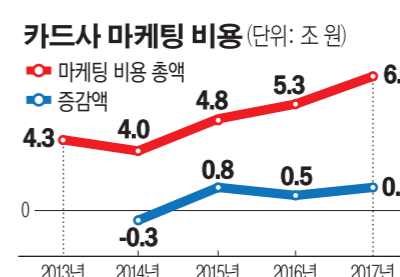
마케팅비 1년새 8000억 늘어... 금감원, 규모 축소 권고

'카드 수수료 0%'. 카드사들이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을 거세게 맞고 있는 가운데, 마케팅 비용 지출 규모가 1년 새 8000억 원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를 원가(직적비용) 재산정 과정에서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 반영 비율은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결국 수수료 원가 항목 중 하나인 마케팅 비용의 반영 비율을 낮출수록 카드수수료 인하 여력은 커진다.

따라서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 지출 규모가 정부의 수수료 인하 압박에 어

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과당경쟁을 우려해 카드사들에 일회성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관련기사 6면

이투데이가 최근 금융감독원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 열람한 '2017년 카드사 마케팅 비용 지출 규모'에 따르면 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 등 전업계 카드 8개사의 마케팅 비용 총액은 6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5조3000억 원에서 1년 만에 8000억 원이 급증했다. 마케팅 비용의 증가폭은 2015년



이후 매년 5000억~8000억 원 수준을 유지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카드사의 전체 비용 추이와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카드사 비용은 20조6645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19조4655억 원과 비교하면 증가폭은 1조2000억 원 수준이다. 같은 기간 마케팅 비용과 비교하면 전체 비용 증가분의 67%를 마케팅에 쏟아부은 셈이다. 심지어 2016년의 경우 전체 비용 증가폭은 마케팅 비용의 증가분보다 낮았다. 이와 맞물려 전체 비용에서 마케팅 비

율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23.5%, 2015년 25.3%, 2016년 27.2%에 이어 지난해에는 29.5%로 30%에 육박했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업계의 마케팅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부터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 등으로 비용 관리가 중요하지만 마땅한 수익원도 없고 새로운 수익원 창출도 당장은 어렵기 때문에 카드사들이 비용을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근 금감원은 카드사들에 일회성 마케팅 규모를 축소하도록 권고했다. 카드사들이 마케팅에 수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고 당국에서도 이를 축소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당국이 추진 중인 0%대 수수료의 정책방향에서 카드사들의 비용 부담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김병리 기자 kimstar1215@**

“은산분리 등 핀테크 지원·규제 재설계 필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현장간담회’

“인터넷전문은행·핀테크 기술 상호작용이 금융산업 변화 주도”
현행 법령 내 서비스 개발 돕는 ‘금융 테스트베드 3종’ 운영
앞서 참석한 국회 토론회에선 ‘인터넷전문은행법’ 통과 강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3일 “정부는 그간 핀테크 규제혁신을 통해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혁신 보험상품 개발, 클라우드 활용 확대, 마이데이터 정책 등 제도적 지원에 주력해 왔다”며 “앞으로 자금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는 등 기존 지원·규제 시스템을 재설계하겠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금융산업 플레이어로 등장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공인인증서 없는 은행 거래, 24시간 은행 거래는 비대면 인증기술과 스크래핑(Scraping)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과 인터넷 전문은행의 협력 없이는 현실화하지 못할 것”이라며 “인터넷 전문은행은 이런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혁신기술을 촉진하고 확산해 핀테크 생태계에서 하나의 중심점으로서 금융산업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종구(오른쪽)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판교오피스에서 열린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핀테크기업 간의 다양한 협업사례를 듣고 의견을 나눴다. 오승현 기자 story@

월 받았지만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현행 법령 내에서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하도록 금융 테스트베드 3종 세트(비조치의견서 발급·위탁 테스트·지정대리인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과 카카오, 더치트, 뱅크웨어글로벌 등 핀테크 기업 대표들과 만나 인터넷은

행과 핀테크 기업의 협업 강화를 위한 방안, 향후 핀테크 활성화 방향을 논의했다.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11일 국회 토론회에서 “은산분리 원칙 적용 방식을 재검토할 시점”이라며 ICT 기업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주는 ‘인터넷전문은행법’ 통과를 강조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정무위 핸들 쥔 민병두 ‘은산분리’ 완화 시동

여당 간사에 ‘규제완화’ 주장 정재호 의원 등
기류 변화 움직임...금융당국도 특례법 제시

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정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면 인터넷 전문은행의 숙원인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규제가 완화될지 주목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은산분리 규제를 담당하는 상임위원 정무위에 은산분리 완화를 찬성하는 민 의원이 정무위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여당 간사에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을 발의한 정재호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정재호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안은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 전문은행의 지분을 34%까지 보유하도록 했다. 단,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즉 재벌은 현재와 같이 지분한도를 4%로 제한하게 했다.

그동안 은산분리 유지를 고수한 민주당 내 기류 변화도 엿보인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특례법을 통해 지분 보유 한도를 34%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그동안 자본금을 늘리는 데 애를 먹었던 인터넷 전문은행도 시종은행 못지않은 규모로 ‘덩치’를 키울 수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도 특례법을 통한 은산분리 완화에 힘을 싣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경제규모 확대와 경제시스템 선진화 노력이 이어지면서 (은산분리라는) 원칙 적용 방식을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며 “은행법상 은산분리 원칙을 덜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의원들께서 특례법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는 1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했다가 300억 원에 그쳤다. 계획보다 규모가 줄었고 보통주 지분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전환주로 발행했다. 케이뱅크 주요 주주인 KT는 은산분리 규제에 막혀 실권된 보통주는 사들일 수 없었다.

현행 은행법령에서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을 최대 10%(의결권은 4%)로 제한하는데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은 10%로 이미 한도가 찼다.

다만 여전히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계속해서 나온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를 열어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약화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취약하게 할 우려가 농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은산분리는 한국 금융정책의 기본 원칙이자 금융안정조이며 어떤 이유로도 은산분리 완화는 정당화시킬 수 없다”면서 “이를 강행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총력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김하니 기자 honey@

‘630만’ 고객 키운 카뱅...자본 확충 어려워 상품 제한

혁신적 서비스 은행업계 새바람
자산 규모 8兆, 제주銀 뛰어 넘어
은산분리 완화하면 시중銀 경쟁



지난해 인터넷 전문은행 시대를 선도한 카카오뱅크가 이달 15일 기준 고객 600만 명을 돌파했다. 시중은행보다 싼 수수료와 금리, 간편한 조작 등을 앞세워 출범 초기부터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전쟁에 가세해 경제자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은산분리 규제 여파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이용 상품도 여전히 제한적이다.

격차가 커졌다. 현재 자산 규모로 카카오뱅크는 전북은행(17조5291억 원) 다음이다. 앞서 출범한 케이뱅크에 비해 성장 속도가 빨랐다. 케이뱅크는 자산이 지난해 12월 말 1조3511억 원, 올해 1분기 말엔 1조5422억 원이었다. 카카오뱅크 여·수신 규모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달 15일 기준 수신은 8조5186억 원, 여신은 6조9400억 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수신은 70.7%, 여신은 50.2% 각각 뛰었다. 카카오뱅크 경영 성과도 개선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376억 원에 달한 적자를 올해 1분기 53억 원까지 줄였다.

카카오뱅크는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로 보수적인 은행업계에 새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24시간 어디서든 계좌를 만들 수 있고, 서류 제출 없이 바로 대출도 되는 데 고객들은 열광했다. 공인인증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 각종 인증 장치가 최소화한 것도 호응을 얻었다. 금리가 높고 수수료가 낮다는 점 역시 기존 은행들과 차별점이다. 카카오뱅크는 금융회사, 편의점,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모든 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입출금·이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해외송금 수수료는 5000달러까

지 5000원만 받는다. 카카오뱅크가 끼친 영향은 단순히 금융 서비스 편의성 향상만은 아니다. 지난 1년 동안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전쟁에 가세하면서 경제자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시중은행에 비해 턱없이 적은 자본금으로 저금리 대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하면 그동안 자본금을 늘리는 데 애를 먹었던 카카오뱅크도 시중은행 못지않은 규모로 ‘덩치’를 키울 수 있다. 지난달 카카오뱅크 일반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3.93%로 5대 시중은행과 비교해 최저가 아니다. KB국민은행(연 3.95%), KEB하나은행(연 4.91%), NH농협은행(연 3.95%)보다는 낮지만 우리은행(연 3.79%)보다는 높다. 한편 이용 상품도 여전히 제한적이다. 올해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출시했으나,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없다. 사업자 대출도 불가능하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상품 구성을 다양화하고 기업 거래를 위한 펀딩을 확대하는 것이 단기 과제”라며 “모바일에서만 판매해도 문제가 없는 상품을 만들어야 하기에 시간이 더 걸린다”고 말했다. 안철우 기자 acw@

편견을 걷어내면 능력이 보입니다!

장애가 아닌 능력을 바라볼 때,
함께 일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취업 전 준비부터 취업 후 적용까지 체계적 지원

직업능력개발
장애인이 능력을 키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기업지원
기업의 장애인고용 준비부터 관리까지 체계적 지원

연구개발
장애인의 고용의 미래를 여는 연구개발 사업 수행

전국대표번호
1588-1519
www.kead.or.kr

“무역긴장 고조 세계경제 하락 위험”

G20 재무장관·중앙銀 총재 공동성명 채택... 김동연 부총리, 美·中 재무장관과 연쇄회담

주요 20개국(G20) 경제수장들이 “세계 경제가 무역긴장 고조 등으로 인해 하락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무역갈등 완화를 위한 폭넓은 대화 노력을 촉구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22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G20 재무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일부 선진국에서 성장이 약화하고 있으며, 무역 긴장 고조 등으로 단기·중기 경제의 하락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화와 행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단기·중기 경제침체 위험은 금융 취약성 증가, 높아진 무역·지정학적 긴장, 전 지구적인 불균형과 불평등, 일부 선진국의 구조적인 성장 부진을 포함한다.

단 성명에는 무역분쟁의 진앙으로 미국이 적시되지 않았다. 앞서 미국이 340억 달러(약 38조 6000억 원) 상당의 중국산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같은 규모의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맞대응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필요하다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5000억 달러(567조 7500억 원) 규모의 모든 중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이차 럼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이 절정으로 치닫는 시점에 열렸다.



김동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재무장관회의·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 류룬 중국 재정부장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회의의 기간에 우리 측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류룬 중국 재정부장과 각각 양자면담을 갖고 자동차

차 관세 등 통상 현안과 관련한 우리 측 입장을 전했다.

기자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므누신 장관과 면담에서 미 상무부가 진행 중인 자동차 안보 영향 조사에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미국의 고용 및 투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들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및 개정 협상을 통해 양국 간 공정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자동차 관세 부과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류룬 부장과 면담에서 한·중 양국은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상호 시장 개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김 부총리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국 당국의 관심을 촉구했고, 이에 류 부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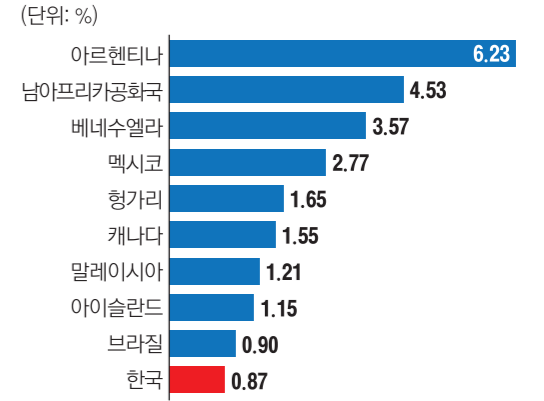
한편, 이번 회의의 의장국인 아르헨티나의 니콜라스 두호브네 재무장관은 22일 폐막 기자회견에서 “대화를 통해 G20 간 결속이 강해지고, 건설적인 논의가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해서 “건설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6월 원화 실질실효환율 하락률 ‘세계 10위’

114.21... 전월보다 0.87% 떨어져 달러 강세·G2 무역분쟁 확산 영향

6월 실질실효환율 하락률 상위 10개국



원화 실질실효환율이 급락세를 보였다. 하락률이 조사대상국 61개국 가운데 10위에 올랐다.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벤트가 마무리되면서 그간 반영하지 못했던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달러화 강세를 한꺼번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 연준(Fed)은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인상을 단행했고, 마·중 간 무역분쟁이 확산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실질실효환율의 절대 수준은 여전히 높다. 유로화나 중국 위안화 등 주요국 통화들도 동반 하락했기 때문이다.

23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6월 한국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은 전월 대비 0.87%(1.00포인트) 하락한 114.21을 기록했다. 직전 달에는 115.21을 보이며 2008년 2월 118.67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실질실효환율이란 세계 61개국의 물가와 교역 비중을 고려해 각국 통화의 실질적 가치를 보여주는 지표다. 수치가 100보다 높으면 기준연도(2010년)보다 그 나라 화폐가치가 고평가됐다는 의미며, 낮으면 저평가됐다는 뜻이다. 즉, 이 수치가 상승하면 수출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됨을, 하락하면 강화됨을 의미한다.

월별 하락률은 아르헨티나(-6.23%), 남아프리카공화국(-4.53%), 베네수엘라(-3.57%)가 가장 컸다. 우리나라는 아이슬란드(-1.15%), 브라

질(-0.90%)에 이어 하락률 상위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주요 교역국인 중국(-0.64%, 126.43)은 13위에, 유로존(-0.07%, 96.41)은 27위에 각각 랭크됐다. 반면 일본은 0.50% 오른 74.85를 기록했다.

한편 6월 평균 원·달러 환율은 전월 대비 1.5%(16.41원) 오른 1092.80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1105.04원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 관계자는 “달러화 강세 신중국 통화 약세 분위기와는 별개로 원화는 북한 리스크 완화 기대감에 영향을 덜 받았었다.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6월 FOMC와 마·중 간 무역분쟁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분위기를 빠르게 반영했기 때문”이라며 “마·중 무역분쟁을 예단하기 어렵다. 무역분쟁이 더 확대돼 환율전쟁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환율 변동성은 앞으로도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G2 갈등 최대 피해자는 한국”

미국발 글로벌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까지 비화하면서 강대국들과 대방면으로 얽힌 신흥국들만 계속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세계적인 무역 갈등에서 최대 피해자는 강대국 당사자들이 아니라 한국과 헝가리, 체코, 대만, 싱가포르처럼 중간에 낀 개방형 나라들이라고 22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들 나라의 공통점은 세계 곳곳에서 원자재와 부품들을 들여와 자체 공장에서 조립한 후 해외로 되팔라는 것이다. 이는 각국 간 긴밀한 연계를 전제로 하는데, 보호주의가 확대되면서 수입 비용이 비싸지는 한편 수출 수요가 줄어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 런던 싱크탱크인 국립사회경제연구소의 아미트 카라 거시경제 예측 책임자는 “무역에 의존하는 작고 개방적인 경제일수록 더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픽셋자산운용이 세계무역기구(WTO)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세계적인 무역 갈등에서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상위 5개국은 대

에 시장에서는 무역전쟁에 따른 경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 당국이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고 있다는 관측이 증폭됐다.

중국인 G20 회의에서 “수급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환율 조작의 결과인지 시장 역학에 의한 것인지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므누신 장관은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달러 견제 발언에 대해 “강한 달러는 미국 국익에 부합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시장 개입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달러 강세가 미국의 경쟁력을 빼앗고 있다”며 달러 강세에 제동을 걸었다. 이후 달러 가치는 한때 3개월 만의 최저치로 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금리인상 노선에 대한 일종의 경고였는데, 논란이 일자 “중국, 유럽연합(EU) 등의 국가는 통화 약세 유도과 저금리 정책을 펼쳐왔다”며 달러 강세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무역 상대국에 돌려 무역 마찰이 환율 마찰로 발전될

WSJ “韓·헝가리·체코 등 강대국 사이에 낀 개방형 나라 위험 노출” 원자재 수입 비용 늘어나고 중간재 수출 수요는 줄어 치명적 타격 美 금리인상 가속화 따른 이자상환 부담 증가... 자본유출 우려도

만, 헝가리, 체코, 한국, 싱가포르 순이었다. 이들 나라는 GDP에서 수출 비중이 60~70%를 차지, 글로벌 무역전쟁의 혼란에 쉽게 노출된다. 반면 위험에 가장 적게 노출된 나라 순위에서 미국은 2위를 차지했고, 중국과 유럽은 그 어느 쪽에도 끼지 않았다. 이는 이미 투자 심리에도 반영됐다. 한국 코스피지수는 올해 7.5% 하락했고, 싱가포르의 ST지수는 3.7%, 헝가리 BUX 지수는 10.8% 각각 떨어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률이 2017년 5.9%에서 올해는 4.3%로 낮아질 것이며, 내년은 3.6%로 더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작은 개방형 경제는 무역전쟁을 다른 국가들보다 더 잘 견뎌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무역과 환율을 둘러싼 세계적인 갈등은 잦아들기는커녕 더 첨예해지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 21일(현지시간) 밤 개막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내 탓 공방’으로 얼룩졌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신흥국에서 자본 유출 속도가 가팔라지는 가운데 최근 급속도로 진행된 중국 위안화 약세에 대해서도 시선이 집중됐다. 위안화는 20일 한때 달러 대비 1년 1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

것이란 우려를 자아냈다. 신흥국에 환율전쟁은 치명적이다. 그동안 신흥국들은 저리로 달러 자금을 경제적으로 차입했는데, 미국의 금리인상이 가속화하면서 상환 부담이 커졌고, 그로 인해 자본 유출입이 다시 유출 초과로 돌아섰다.

G20 회의가 열린 아르헨티나의 경우, 페소가치는 달러에 대해 4월 이후 27%나 하락했다. 통화 약세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는 40%까지 올라 시중금리는 50%가 넘는다. 브라질 헤알은 4월 이후 달러 대비 12% 하락했고, 인도와 터키도 통화 가치가 달러 대비 한때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 이렇게 가다가 인플레이션과 자본 유출이 맞물려 경기가 순식간에 하방 압력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외환 위기를 겪은 아시아 신흥국은 최근 무역전쟁 직격탄을 맞아 통화 매도 압력이 거세다. 특히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수출 비중이 국내총생산(GDP)의 60%로 높아 무역전쟁은 치명적이다. 아시아 각국은 외환 보유고 증액으로 환율 방어에 나섰지만 인도네시아 루피아는 4월 이후 달러 대비 5% 하락했다. 대중국 무역 비중이 높은 한국도 환율이 6%나 빠졌다. 배수순 순회특파원 sue6870@

ENERGY를 CHANGE하라

자연을 에너지로
건강한 환경을 생각합니다.
안전한 에너지로
인류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환경과 인류를 지키는
ENERGY CHANGE!
한국남동발전이
에너지 전환을 선도합니다.

Clean & Smart Energy Leader!
KGEN 한국남동발전

(탐라해상풍력 전경)

당권 도전 출사표 던진 박범계 민주당 의원

“지방선거 압승, 오히려 위기 정책정당 이끌 새 얼굴 필요”

“지방선거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냉엄한 평가가 시작된 것이죠.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혁신입니다. 혁신은 결국 새 얼굴이 아닌 연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도전한 박범계 의원은 20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차기 당대표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로 ‘혁신’을 꼽았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방향에 대해 “국민의 가혹한 평가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혁신을 통해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당대표 선거 출사표를 던진 것은 4일,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25 전당대회에 출마한 8명의 후보 가운데 가장 빨랐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박범계 국회의원이 서울 영등포구의 한 사무실에서 출마의 변과 포부를 밝히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黨 정책보고서 귀하게 쓰이는

당·정·청 관계 만들어야

소득주도성장 골격 유지하며

최저임금 속도·단계 조절해야

출마를 결심한 시점에 대해 박 의원은 “6·13 지방선거 승리 직후”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지방선거 압승으로 민주당이 커졌지만, 그만큼 튼튼해지지는 않았다”면서 “앞으로 기회 요인보다 위기 요인이 크다는 직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민주당의 혁신 방향은 ‘정책정당’이다. 정책적 역량을 보다 키우는 동시에 비(非)정책 역할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박 의원은 “과도한 의지와 욕구를 가지면 청와대나 정부 부처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라며 “당 대표의 ‘메시지 과잉’을 줄이고 당 정책보고서가 대통령에게 귀하게 쓰이는 당·정·청 관계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같은 변화를 이끌 적임자가 반드시 ‘새로운 얼굴’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으로 찾아올 당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데, 과거의 인물군으로 혁신을 이야기한다면 그 자체로 형용모순”이라는 것이다. 이어 박 의원은 자신이 당내 의원 중 유일하게 입법, 행정, 사법부 경력을 모두 가진 점을 언급, 자신이 ‘유능한 혁신가’라고 자신했다.

한편 8명의 예비후보가 난립한 이번 당대표 선거는 과거와 다르게 후보군을 ‘전문(전문재인)과 비전문, 주류 대비주류’로 정리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전문계로 분류되던 여러 의원이 동시에 출사표를 던졌다는 점에서 ‘전문’의 세대전쟁’으로 불리기도 한다. ‘부영이 모임’의 일원이기도 했던 박 의원 역시 그중 하나다. 전문 성향 당원들로서 선택이 고민스러운 선택지다.

박 의원은 전문 의원 중에서도 자신이 당대표를 맡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가장 열심히 일할 수 있는 50대의 나이면서 균형감 있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적합 후보”라며 “세대론”을 부각했다. 당 대표를 하기 위해 재선 경쟁이 쪼파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정치 경력으로만 놓고 보면 노무현 대통령 지지 선언을 했던 2002년 이후 16년째”라고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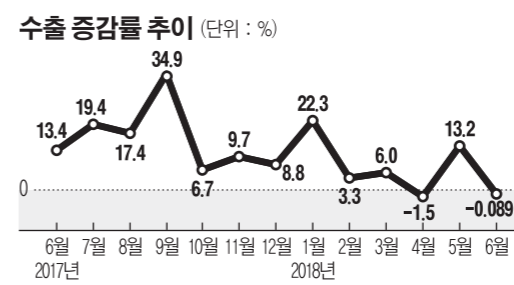
아울러 최근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으로도 이어진 최저임금 인상 논란과 관련해 박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의 골격이 훼손되면 안 되지만 속도와 단계에 대한 조절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제부터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보여야 한다”면서 “현대사회의 승부는 디테일에서 난다. 정책의 디테일에 더 신경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충현 기자 lamuziq@

먹구름 드리운 수출, 7월엔 반등할까

미중 무역전쟁·EU 철강관세 ‘불똥’... 조업일수 감소 없고 반도체 성장 지속 산업부 “작년 대비 3~5% 증가” 전망

이달 미·중 상호관세 부과와 유럽연합(EU)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으로 우리 수출에 먹구름이 드리운 가운데 이 같은 악재를 딛고 7월 수출이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6일 34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중국도 34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러한 양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이달 우리 수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특히 미국의 관세 부과가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 감소로 이어져 중국에 소재·부품 등 중간재 수출을 많이 하는 한국도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 소지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부터 23개 철강 품목에 대해 저율관세 할당(TRQ)을 적용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현재 대미 철강 수출 물량 제한으로 고초를 겪고 있는

우리 철강 업계에 또다시 불똥이 튈 셈이다. 수출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달 수출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7월 수출은 전년 대비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달에는 연휴가 없어 조업일수가 그대로 유지되고, 국제유가에 따른 석유제품 단가 상승과 반도체의 수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산업부는 조업일수감소에 따른 수출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수출이 아슬하게 전년 대비 소폭 감소(-0.09%)한 것은 조업일수 감소(-1.5일)가 영향을 미쳤다.

이 관계자는 “조업일수가 하루라도 줄어들면 수출이 22억 달러 손실을 본다”면서 “7~8월까지의 관망지만 9월에는 조업일수가 3일이나 줄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이 총리, KT 기술로 구축 탄자니아 주민등록증 데이터센터 방문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현지시간)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의 주민등록증 데이터센터를 방문, 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이곳은 2012년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국내 KT가 건설, 시범운영 중이며 하반기에 개소식을 한 후 본격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다레살람(탄자니아)/연합뉴스

사회복지 지방공무원 1만2000명

국가재정 투입 2022년까지 충원

정부가 올해 말까지 3500여 개 모든 읍·면·동으로 ‘찾아다니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산하고, 2022년까지 국가 재정을 투입해 사회복지 전담 지방공무원을 1만2000명 추가 선발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복지 위기 가구 발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했던 ‘현장 맞춤형 위기가구 발굴’ 모범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이를 위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주민, 방문형 사업자가 참여하는 기칭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이들은 대상자에 대한 주기적 안부 확인, 초기 위험 감지, 복지 욕구 조사 등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신고·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산하고, 2022년까지 사회복지 전담 지방공무원과 방문간호직을 각각 1만2000명, 3500명 충원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국가 재정을 투입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인력을 충원할 때와 국고로 지원할 때 사람을 채용하는 비율이 확연히 차이가 난다”며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국고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방안을 강구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복지전담팀’을 꾸려 지역 주민을 직접 찾아가 필요 서비스를 연계하게 된다. 보건소와 경찰, 소방서, 정신건강보건센터 등 공공기관 간 협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사회복지정보시스템(행복e음)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의 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긴급지원 대상의 재산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 자살 고위험군(유가족 포함)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제도적인 개편도 병행할 예정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졸업장 받고 공사판으로... ‘단순노무’ 청년 25만명

15~29세 청년층의 7.7% 달해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하고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하지 못해 건설현장의 막노동 등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청년이 25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높은 실업률과 현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청년 신규 채용이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청년층(15~29세) 가운데 건설 노동 등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청년은 올해 5월 기준으로 25만 3000명에 달했다. 이는 1년 전보다 2만7000명이 늘어난 것이다. 통계 분류상 단순 노무는 건설

현장의 소위 막노동이나 주유, 음식배달 등 보조 업무 성격의 일을 뜻한다. 졸업·중퇴 청년의 단순 노무직 비중은 전체(330만1000명)의 7.7%에 달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가장 높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5월에도 졸업·청년층 단순노무직이 큰 폭으로 늘며 23만7000명까지 치솟았지만 비중은 7.0%로 지금보다 낮았다.

주유나 건설현장 등을 전전하는 청년층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다는 뜻이다. 최근 수년간 계속된 실업률 고공행진으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나타난 불가피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Good Water Project in School

굿네이버스

학교 안의 깨끗한 물, 아이들을 꿈꾸게 하는 물

굿네이버스는 깨끗한 물 지원을 통해 지구촌 아이들의 더 나은 내일을 응원합니다

- 아프리카 저개발국의 학교 중 식수가 없는 학교, 49%
-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 걷는 거리, 6km

굿워터프로젝트 검색

피해액 회사에 돌려줬어도 보험사기 설계사 해고 정당

법원 "보험신뢰 깨뜨린 행위 엄격 제재"

보험사기로 유죄를 확정받은 보험설계사의 해고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보험계약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보험사기 행위를 금지한 보험업법이 판단 근거가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전직 보험설계사 안모 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설계사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안 씨는 보험설계사로 복직하지 못하게 된다.

재판부는 안 씨가 보험사의 피해를 회복했음에도 등록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 씨가 피해 금액을 보험회사에 돌려줬고,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되면 가정의 생계가 막막해진다고 주장하지만,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며 "보험사에서 사고에 대해 의심하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자 불가피하게 보험금을 돌려준 것으로 보여 사정을 고려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사기는 회사의 손실을 초래해 보험료의 인상 등 다른 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특히 보험설계사의 사기행위는 보험 거래 질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계약의 이해당사자들이 보험사기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를 벌였을 경우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나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안 씨는 낯섰에서 넘어져 요추 추간판 탈출증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3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병원 진단과 사고는 관련이 없다고 밝혀져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금융위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당했다. 그러나 안 씨는 수사관의 회유로 약식명령을 받아들인 것일 뿐, 보험설계사 등록취소는 부당하다며 금융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윤한솔 기자 charmy@

박원순 시장 '옥탑방 한 달 살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22일 오후 강남구 삼성동의 2층 옥탑방에서 강북 '한 달 살이'를 시작하며 부인 강난희 여사와 함께 부채를 부치고 있다. 박 시장은 조립식 건축물 2층 옥탑방(방 2개, 30.24㎡)에서 다음 달 18일까지 기거하면서 지역 문제의 해법을 찾고 강남·북 균형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시, 소규모 필로티 건물 100개 지진안전 점검

서울시는 소규모 필로티 건축물 100개 등을 대상으로 9월 9일부터 지진안전 점검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5층 이하, 연면적 1500㎡ 이하이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를 건축물 내진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점검을 희망하는 필로티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를 모집한다. 서울시 홈페이지 배너를 클릭한 후 성명, 연락처, 건물개요(주소, 층수, 필로티 여

부)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건축물 중에서 정액대안 수립을 위해 구조·용도·규모별 요인을 감안해 100개 동 내외로 내부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순차별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은 지진 분야 구조전문가가 건축물 내진 성능을 개략 평가해 지진취약 건축물 여부를 판단한다. 구조적 안전성 판단에 따라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안전성을 고려해 소유자에게

구조체 보수·보강 방법 등 내진보강 방안을 안내해 줄 계획이다.

이외에 내진보강 건축물 지방세 감면, 서울시 지진안전포털 활용 방법, 알기 쉬운 내진보강 공사 매뉴얼 등을 소개한다.

박경서 서울시 건축기획과장은 "최근 발생한 경주, 포항 지진으로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찾아가는 지진안전 점검 및 적극적인 공공지원 제도 안내를 통해 시민의 지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인천지방국세청' 신설 초읽기... 심의 결과 임박

공항·항만 관련 특화된 세무행정 기대

인천지방국세청 신설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4월 국세청이 제출한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과 소요정원 안을 심의하고 있다.

서울·부산·중부·광주·대전·대구지방국세청에 이어 국내 7번째 지방국세청이 될 인천청은 현재 중부청 산하인 인천·북인천·서인천·남인천세무서와 부천·김포·고양·동고양·파주 등 9개 세무서에 몇 개 세무서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도 각 부처 예산과 소요정원 안이 7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되는 점을 감안하면 행안부 심의 결과도 곧 판가를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기획재정부가 관련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가 최종 확정한다. 인천은 현재 6대 광역시 중 지방국세청이 없는 유일한 도시다.

인천을 담당하는 중부청은 경기·강원지역까지 맡아 다른 5개 지방청과 비교해 담당하는 인구와 면적이 2배 이상 크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인천에는 경제자유구역·공항·항만이 있어 특화된 세정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세청은 인천과 경기지역 세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작년 2월 인천 남동구에 있는 중부청 조사4국에 '납세자보호2담당관실'을 신설, 인천과 경기 서북부 지역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중부청 조사4국이 관할하는 인천과 경기 서북부 9개 세무서의 지난해 세수 실적은 12조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원이 늘었다.

세수 실적만 놓고 보면 이미 대구청(11조4820억 원)을 추월했고, 광주청(14조7960억 원)에 근접한 수준이다.

지방국세청이 생기면 그동안 고액 경쟁청구,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 과세 이의신청 등의 업무를 보기 위해 멀리 이동해야 했던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납세자 보호와 사전 정보 제공도 한층 강화된다.

한편 인천지방 국세청 신설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박남춘 인천시장도 17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역 현안을 설명하면서 인천지방국세청 설립 관련 안전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檢 "이중근 부영회장 보석 취소해야"

검찰이 보석으로 석방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해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항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이 18일 이 회장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4300억 원대 횡령·배임, 임대주택 분양 폭리,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회장은 5개월 만에 풀려났다. 이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의 임대아파트 분양 전량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등 4300억 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금 납부를 위한 비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부인 명의의 건설자재 임대업체를 설립해 부영주택 자금 155억 원을 빼돌린 혐의, 2014년 아파트 경비 용역 입찰 과정에서 응찰 가격 등을 조작해 조가가 운영하는 용역업체에 90억 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도 받는다.

정수천 기자 int1000@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前법원행정처 차장 자택 압수수색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현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1일 임 전 차장의 서초동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 나선 지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정수천 기자 int1000@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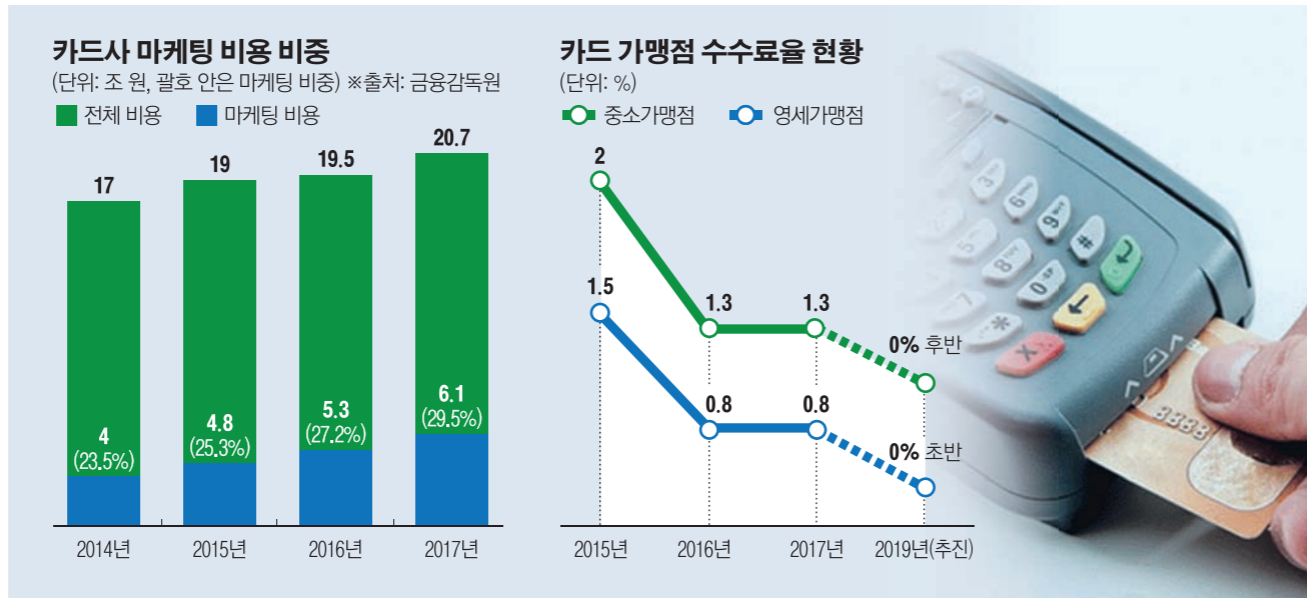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도 임 전 차장이 실무책임자로 관여하면서 상고법원 임법화 등 정책 실현을 우선시하며 재판의 독립 및 법관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일회성 마케팅비 줄여라”... 카드수수료 인하 옥죄는 금감원

카드사 '곡소리' 안 먹히나

신차 캐시백·무이자 할부 등 마케팅비 年 최대 8000억 지출 업계 건전성 악화 우려 '채찍질' 수수료 인하·제로페이 도입 등 업계 반발 명분 잃을 가능성 커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 임원들을 소집해 캐시백·할부·무이자할부 등 일회성 마케팅을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카드사들이 마케팅 비용으로 매년 5000억~8000억 원씩을 들이며 불필요한 출혈 경쟁을 하면서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 감소로 전체 비용이 줄어 들고, 사안에 따라서는 정부·금융당국 발(發) 수수료 인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달 19일 전업계 카드사의 임원들을 소집해 신차 캐시백, 무이자 할부, 아파트 관리비 납부할인 등 일회성 마케팅을 7월부터 축소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올해 중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을 재산정해야 하는데 과도한 마케팅이 카드사들의 건전성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금감원 측은 밝혔다. 이 같은 조치에도 마케팅 경쟁이 이어지



면 금감원은 카드사들의 비용 지출 현황을 공식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마케팅 규모를 좀처럼 줄이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등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청구할인, 캐시백 등 마케팅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 마케팅 축소는 곧 시장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어느 정도의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쉽게 당국 지시를 따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는 당국이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케팅이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앞으로 당국이 관련 공시를 한다든

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조치를 취하면 비용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당국의 압박에 따라 카드사들이 전반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줄이게 되면, 최근 이슈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제로페이’ 도입 등에서 업계 목소리에 힘을 잃을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최근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 지원책의 일환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통합형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에 대한 구축 방안을 내놓았다. 제로페이란 계좌이체 방식을 도입, 카드사와

벤(VAN)사를 거치지 않아도 돼 수수료가 0%대로 낮출 수 있는 시스템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제로페이는) 소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실제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며 “올해 안에 제로페이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가맹점 수수료를 0%대로 낮추는 내용의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는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과, 카드사와 사용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적격비용’ 중 조달비용과 대손비용, 마케팅 비용을 카드사가 분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바리 기자 kimstar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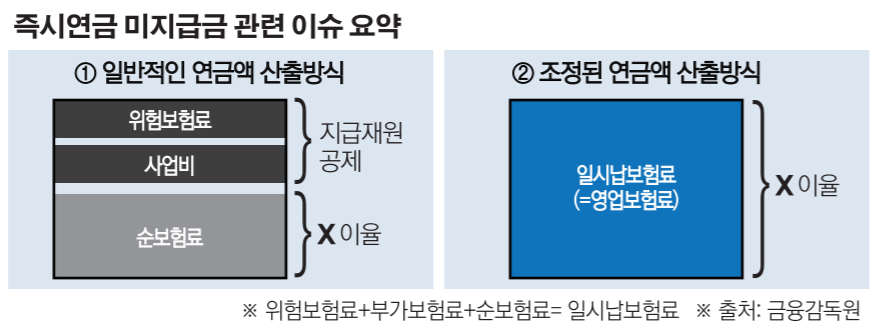
윤석현 금감원장, 은행장 첫 회동 ‘금융사와의 전쟁’ 췌기 박나

종합감사 부활 등 주목 전반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에 비춰볼 때 이번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최근 은행권에서 불거진 대출 금리 산정 오류 사태부터 채용비리, 금융사 지배구조 문제 등을 짚고 앞으로 행보에 대한 당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윤 원장은 9일 금융감독 혁신과제 발표 당시 대출금리 산정 오류 관련 경영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원장은 본래 증권사보다 앞선 9일 보험사 CEO와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금융개혁안 발표 일정과 겹쳐 뒤로 미뤄졌다. 윤 원장은 25일 첫 국회 정부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고 26일부터 8월 2일까지 일주일간 여름 휴가를 떠난다. 보험, 카드, 저축은행 등 2금융권과의 만남은 8월부터 순차적으로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는 5월 말 최중구 금융위원장, 6월 중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만남을 가졌다. 윤 원장 다음으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한 상태다. 김보리 기자 fullmoon@

26일 ‘즉시연금 일괄구제’ 결판... 삼성생명 이사회 쏠린 눈

지급 근거 모호 당국과 이견차 결과 따라 1兆 향방... 업계 촉각

즉시연금 일괄구제를 놓고 금융감독원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삼성생명이 이번 주 이사회를 열고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배임 우려와 당국 압박이 공존한 상황에서 생명보험업계 1위 기업인 삼성생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3일 보험업계 따르면 삼성생명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4300억 원에 달하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과소지급분의 일괄 지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사회는 현성철 대표이사를 비롯한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



돼 있다. 이들은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1건을 전체에 적용해도 되는가를 논의한다.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1조 원의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에 관계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회사별 미지급금 규모는 삼성생명 4300억 원을 비롯해 한화생명 850억 원, 교보생명 700억 원 등으로 추정된다. 현재로서는 이사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단하기 어렵다. 지급 근거가 모호해 배임 우려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고객에게 설명한 약관에는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뺀다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삼성생명을 비롯한 보험사들은 ‘보험금 산출방식에 따

라 지급한다’고 약관에 명시돼 있고, 산출방법서에는 해당 내용이 쓰여 있다고 반박한다. 게다가 이사회에서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일괄지급 찬성표를 던진 이사진은 책임론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다. 실제 일부 사외이사는 “경영진이 결정할 사안 아닌가”라며 예민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생보사 관계자는 “금감원은 보험의 원리를 무시한 해석을 펼치고 있다”며 “일괄구제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는데 삼성생명이 ‘백기’를 들어버리면 당국은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에 대해 ‘소비자 보호’를 주장하며 우리를 압박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현대캐피탈, 업계 첫 ‘법인차 금융 시스템’ 개발

현대캐피탈은 23일 업계 최초로 법인 고객용 ‘디지털 자동차금융 신청 시스템 2.0’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캐피탈은 개인용 ‘무(無)방문·무서류’ 모바일 자동차금융 시스템을 출시했다. 일반적으로 법인 자동차금융은 개인보다 더 까다롭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현대캐피탈은 약 2년 동안 시스템 개발을 통해 업계 최초로 법인용 자동차금융 시스템을 내놓았다. 우선 법인 정보 스크래핑 기술을 통해 한국기업데이터 등 기업평가 기관과 연계하고, 전자 주명부 시스템을 개발해 고객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정보를 자동으로 반영했다. 현대캐피탈 측은 해당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기존에 이를 이상 걸리던 과정을 10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1000개 이상의 시험 시나리오를 설계해 검토하고, 4단계 안정화 절차를 적용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는 편리하게 자동차금융을 이용하고 0.2% 금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차량 판매 딜러들은 불필요한 시간을 줄여 고객 관리에 집중할 수 있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디지털을 통해 고객과 딜러 모두가 만족하는 자동차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다”며 “앞으로 더 편리하고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자동차 금융 시스템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 자동차금융 신청시스템은 간편성에 금리 혜택까지 더해져 고객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현대캐피탈 자동차금융 시스템 이용 고객 90%는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총누적 이용고객 20만 명을 돌파했다.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중소기업이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를 만나 경제의 희망으로 자랍니다

■ 전국 27개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구조혁신의 허브] 입니다.

중소기업과 투자자 연결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정보 플랫폼 역할 수행

공적 재기지원 프로그램 제공

DIP금융(회생기업 자금지원),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등 경영정상화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LG의 에너지 솔루션으로 내일의 공기는 좀 더 맑아질 겁니다

달에도 가고 화성에도 가는
기술이 중요한 만큼
지금 우리에게 지구의 공기를 맑게 하는
기술도 중요하기에...

LG의 에너지 솔루션이
더 청정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넘어
다음 세대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맑은미래.



배기 가스 없이 달릴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



전기 에너지를 저장했다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에너지 저장시스템|



태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태양전지|

더 나은 삶을 위한 혁신
Innovation for a Better Life



2M·짐라인 손잡고 9월부터 본격 서비스 현대상선, 美동안 노선 어찌나

미주 동안(東岸) 공동 노선 구성을 위해 현대상선과 협상을 진행했던 이스라엘 컨테이너 선사 짐라인이 머스크라인과 MSC가 결성한 2M얼라이언스와 결국 손을 잡았다. 이에 따라 현대상선의 미주 동안 노선 복원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4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머스크라인과 MSC, 짐인티그레이티드 슈핑서비스가 아시아-미국 동안 컨테이너 항로에서 전략적 협력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M과 짐라인은 9월부터 머스크라인과 MSC이 각각 5개, 2개씩 운영하고 있던 아시아-북미 동안 컨테이너 항로 노선을 5개로 줄여 선복교환 형태로 서비스 제공에 나서게 된다. 2M이 4개를, 짐라인이 1개 노선을 각각 진행하는 방식으로 제휴 기간은 총 7년이다.

당초 짐라인은 미주 동안 노선과 관련해 현대상선에 협력을 제안했다. 이에 현대상선은 짐이 미주 동안에서 운영하는 'Z73 노선 서비스'에 8500TEU급 선박 2척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2M과의 전략적 협력 이후 아시아-북미 노선에 투입됐던 선박들의 운항 중단으로 선복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잃은 현대상선으로서 미주 노선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전 세계적으로 수출입 물동량이 가장 많은 아시아-북미 노선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글로벌 해운업계에서 살아남기 힘들다고 우려한다. 현재 현대상선은 미주 동안 노선의 경우 2M의 배에 공간을 빌려(선복공유) 화물을 나르고 있다.

그러나 현대상선과 짐라인의 협력 논의는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현대상선 측은 "양 측의 입장 차이가 있었다"면서 "또한 상황이 좋지 않은 미주 동안 노선에 무리하게 역량을 집중시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상황이 좋은 유럽 노선에 집중해 수익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상선은 친환경 컨테이너선 12척이 투입되는 2020년 미주 동안 노선 확대에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미주 동안 노선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6척 이상의 선박이 확보돼야 한다"면서 "지난달 발주한 1만4000TEU급 8척의 인도가 완료되면 미주 동안 노선에 투입, 경쟁력 확보에 나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美, 이란제재' 재개로 악화일로 LG상사 '전기차 사업' 암초에

개발 협상 미뤄진 테다 최악의 경우엔 무산 가능성

LG상사가 추진하고 있는 이란 전기차 사업이 암초를 만났다. 가뜰이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본계약 체결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복원으로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LG상사는 2016년 5월 이란 산업개발청과 전기차 개발사업 관련 합작투자(HOA)를 체결했다. 현지 1위 완성차 업체인 '이란코드로'와 2023년까지 전기차 6만 대를 생산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해당 프로젝트는 LG상사를 필두로 LG그룹의 다양한 전기차 관련 계열사들이 참여한 예정이었다. LG상사와 이란 개발청이 통합 사업관리를 맡았다. LG전자, LG화학, LG이노텍은 모터, 배터리, 배터리관리시스템 등 전기차 핵심 부품 개발을 담당했다. LG CNS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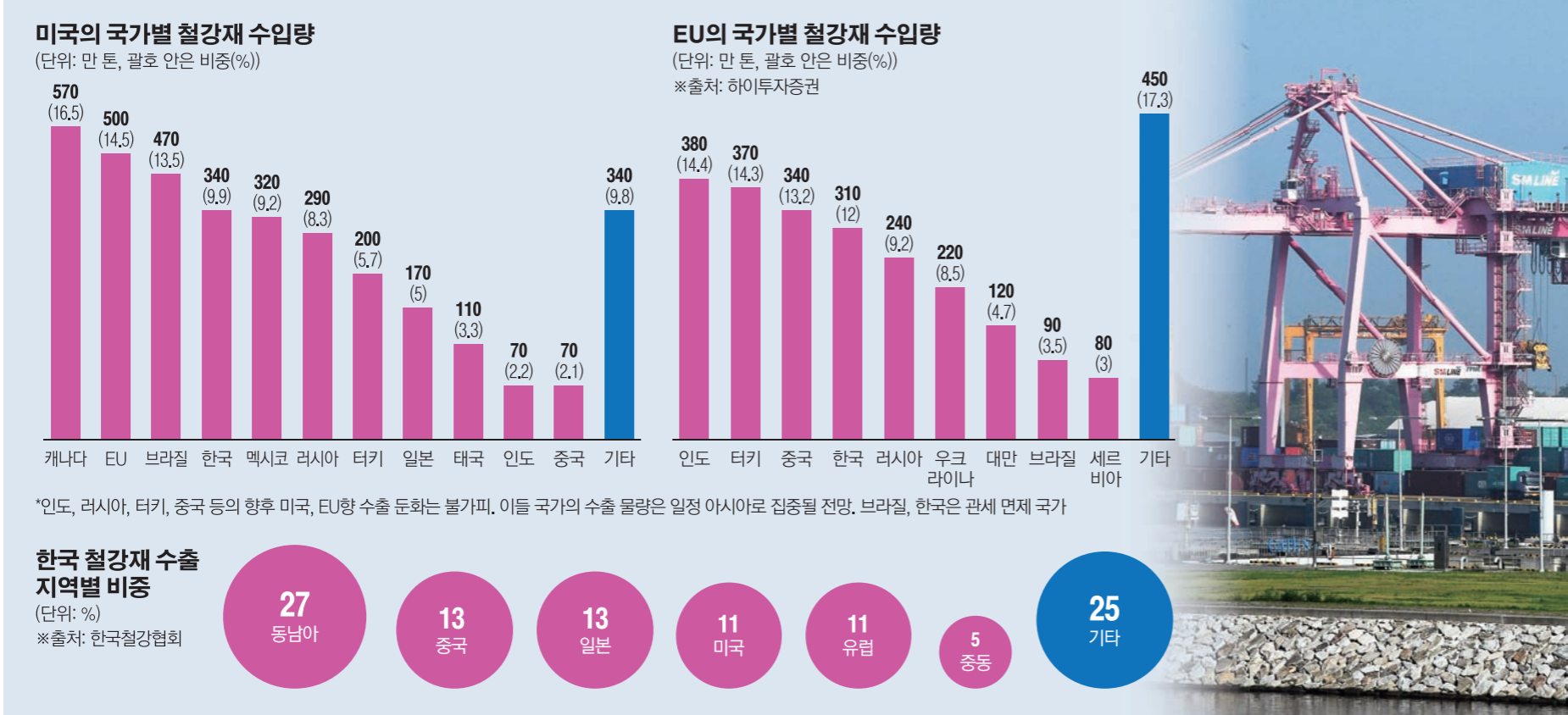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됐다면 본계약은 2016년 내에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세부사항 조율의 어려움, 이란의 정세 불안 등 내·외부적 요인들로 인해 본계약 체결은 2년이 넘도록 차질피어 미뤄졌다.

앞선 데 달턴 격으로 미국이 대(對)이란 제재를 복원하기로 하면서 상황이 악화일로로 걷어났다. 미국이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대규모 사업 추진은 LG상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최악의 경우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미국은 5월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를 공식 선언하고 이란에 대해 역대 최고로 강력한 경제 제재를 천명했다.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여파로 이란에서는 사업을 진행하던 외국계 기업들의 철수가 이어졌다. 대표적인 예가 프랑스 자동차 제조회사 푸조시트로엥(PSA)의 합작사업 중단이다.

LG상사 관계자는 "본계약을 위해 세부적인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나 결과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미국이 대(對)이란 제재에 들어가게 되면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 이란 현지에서의 비즈니스를 조정한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LG상사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확산되는 보호장벽... 수출 다변화 빨간불

G2 무역전쟁, 韓수입 영향은 ③ 철강

국내 철강업계가 미중 무역전쟁 확산 가능성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국내 철강업계가 받는 당장의 타격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철강업계가 연간 중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은 7400만 톤 수준인데, 이 수출 물량 가운데 다시 미국으로 수출되는 양은 약 90만 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다른 피해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워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중국에 계열사를 두고 있는 철강업체의 경우, 사태 추이를 보며 대책을 세우고 있다.

◇ 문제는 동남아 수출 감소 = 유럽연합(EU)은 19일(현지시간) 23개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잠정 조치를 발동하며 역내 무역 보호 조치에 나섰다. 이에 따라 EU는 수입 철강에 글로벌 쿼터를 적용한다. 국가에 상관없이 쿼터 물량까지는 무관세로 수출하고, 물량을 모두 채우면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국내 철강업계는 EU의 쿼터 설정이 미국 방식처럼 수출 물량이 감소한 것이 아닌 데다, EU 수출 비중도 전체 수출 대비 11% 수준이어서 일단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해 국내 철강업계의 수출 다변화 정책에 적색등이 켜졌다는 것이다. 미국과 EU가 수입 철강에 대해 관세 부과 조치를 내려 미국과 EU로 향하던 철강 물량이 동남아, 서남아로 집중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

美 이어 EU도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발동
동남아·서남아로 철강물량 집중 가능성 커져
국내 업계 동남아 수출 경쟁력 약화할수도
장기화 땀 내수시장 교란 등 타격 불가피
동국제강 브라질 제철소 오히려 반사이익

제로 최근 베트남의 수입 열연 가격은 인도발 수출 물량의 증가로 조정되고 있는 추세다.

국내 철강업계의 동남아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 대비 27%로 가장 크다. EU의 최대 수출국인 인도를 포함해 터키, 중국 등이 이 물량을 동남아로 돌릴 경우, 국내 철강업계의 동남아 수출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동남아 철강 시장은 우수한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중국이 이미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철강업계가 동남아 시장의 새 판로를 뚫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데, 많은 양의 철강을 생산할 수 있는 중국 업체들이 마음만 먹으면 더 싸게 철강을 팔 수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EU 등이 무역 장벽을 쳐

도 다른 국가에 수출 물량을 한꺼번에 늘릴 수도 없다"며 "한 국가에 급격하게 수출을 늘리면 반덤핑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장기화 땀 내수시장 교란 = 국내 철강업계는 이럴 때일수록 내수시장을 지켜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글로벌 무역 전쟁이 심화하면 해외업체의 철강이 국내에도 유입돼 내수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국제강의 경우 내수시장이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탓에 해외 철강의 국내 유입에 대한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 때문에 국내 철강업체들은 우리나라 자국 무역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선제적 조치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다른 철강업계 관계자는 "국내 철강업계는 내·외부적으로 호재가 하나도 없어 힘든 시기에 직면해 있다"며 "미국과 중국처럼 정부 차원에서 일찍이 나서 철강 통상 문제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브라질 CSP제철소의 일부 지분을 갖고 있는 동국제강은 오히려 G2 무역전쟁의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에 철광석·솔레브 등의 원료와 반제품을 공급하는 중요한 무역 대상국이며 이란 미국 정부의 232조 시행 과정에서 100% 쿼터를 확보하고 있다. CSP제철소는 전체 생산 물량 중 약 10~15%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 이후 가격이 급등해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전해진다.

양용비 기자 dragonf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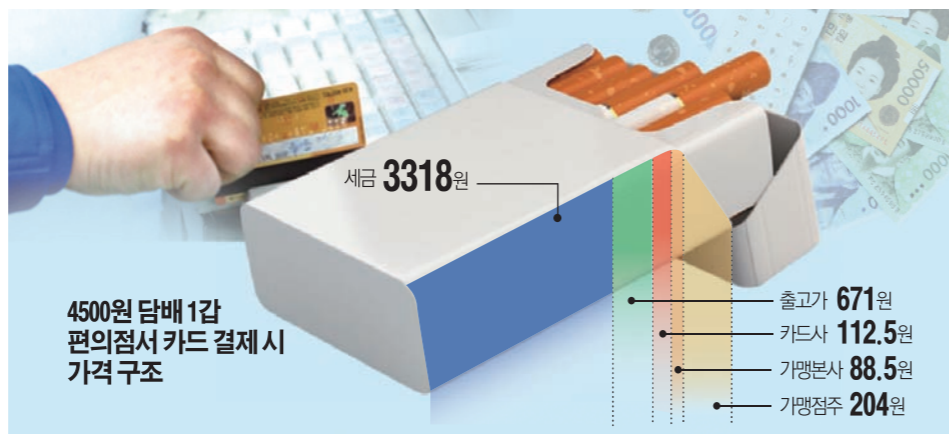
4500원 담배 1갑 카드 결제하면 사장님 뚝은 204원뿐

“팔기도 안팔기도...” 담배 판매에 울상 짓는 편의점주

전체 매출 차지하는 비중 높아
카드수수료 우대 혜택 못받고
세금 비중 높아 평균 마진도 낮아
종량제봉투는 카드사 이득이 커
“카드 결제땀 세금부분 비용 빼야”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으로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편의점들이 카드수수료, 근접출점 등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담배 매출로 전체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 착시 효과 때문에 카드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더군다나 담배 매출의 70% 이상은 세금이어서 편의점이 과세 당국 대신 세금을 견어주면서도 높은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3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에 따르면 4500원 담배 한 갑을 카드로 계산하면 가맹점주에게는 4.5%포인트 204원이 돌아간다. 전체 이익이 9%인 405원밖에 되지 않는다. 데 카드회사에 112.5원, 가맹 본사에 88.5원을 주고 나면 204원이 남는다. 최근 유행하는 전자담배는 고액 상품이나, 평균 마진이 6.06%로 종이 담배보다 더 낮다.



평균 이익률이 5%밖에 되지 않는 종량제봉투의 경우에는 카드회사가 가맹점주보다 이득이 크다. 쓰레기봉투를 100만 원어치 판매한다고 치면 가맹점주는 2만2500원, 카드회사는 2만5000원이 수익이다. 본사에는 2500원이 돌아간다.

이러한 현상은 카드회사들이 편의점 등 중소기업자에게 매기는 수수료가 2.5%로, 5%의 이익률 중 절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2.5%를 가맹점주와 본사가 나눠야 한다.

교통카드업체들과의 관계에서는 가맹점주들이 밀지는 장사를 한다. 교통카드를 100만 원 충전할 경우 가맹점주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5000원에 불과하다. 가맹 본사는 2000원을 청

간다. 또 교통카드를 제품을 100만 원어치 결제하면 교통카드 업체는 수수료로 2만 원을 번다. 가맹점주와 본사가 각각 1만6000원, 4000원씩 부담한다. 담배의 평균 마진이 이처럼 낮은 이유는 세금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총 3318원의 세금이 매겨진다.

편의점들의 담배 연평균 매출은 2억4228만 원이고, 이 중 세금은 1억7864만1000원이다. 여기에 지난해 기준 편의점의 카드 결제 비율인 평균 72.25%를 적용하면 1억2906만9000원의 세금이 카드로 결제되며 2.5% 수수료를 계산해 보면 256만8000원에 달한다.

조남호 기자 sprdn@

공합 맞춘 하이브리드매장 불황에도 지갑이 열린다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최근 각종 규제와 경기 불황 등 어려운 영업환경의 해법으로 '하이브리드'에 주목하고 있다. 온·오프라인을 융합하는 것을 비롯해 중전의 마트와 창고형 할인마트를 결합하는 가하면 슈퍼와 헬스앤뷰티(H&B)숍을 더한 새로운 형태의 매장을 선보이고 있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롯데슈퍼와 룩스, 두 업체의 장점을 결합한 '롯데슈퍼 with 룩스'를 19일 새롭게 론칭했다. 갈수록 성장이 어려워지고 향후 인구 감소 및 최저임금 상승 등 불안정한 영업 환경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슈퍼마켓과 H&B 두 업체의 장점을 취해 돌파구를 찾기 위함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슈퍼마켓 시장은 2006년부터 2011년 까지 연평균 매출증가율 12.7%로 고속 성장해 왔다. 그러나 인터넷 발달과 스마트폰 사용자의 지속적인 증가 영향 등으로 온라인 쇼핑이 확대되면서 2012년 이후 매출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다. 또 화장품 등 트렌디한 상품을 판매하며 10~20대의 젊은 소비자층의 인기에 힘입어 2014년 이후 폭발적인 성장을 해오던 H&B 시장 역시 최근에는 출점 점포수가 줄며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롯데슈퍼 with 룩스'는 장보기형에 최적화된 300평대 롯데슈퍼의 기본 골격에 H&B 전문매장인 룩스의 영업 노하우를 함께 빚어내 완성됐다. 종전에 운영하던 슈퍼마켓 상품 6600여 개를 5500여 개로 대폭 축소하고, 프리미엄급 H&B 상품 및 단독 상품 4200여 개를 도입해 40~50대 기존 고객과 20~30대 신규 고객 모두를 만족시킨다는 계획이다.

홈플러스도 지난달 26일 대구점을 리모델링해 '홈플러스 스페셜' 매장으로 재오픈했다. 홈플러스 스페셜은 슈퍼마켓에서부터 창고형 할



롯데슈퍼 with 룩스
슈퍼마켓·헬스앤뷰티숍 장점 결합
20~50대 폭넓은 고객층 유인 효과



홈플러스 스페셜
슈퍼마켓+대형마트+창고형 매장
1인가구부터 자영업자까지 대만족



롯데하이마트 옴니스토어
진열대 없는 상품 바로 온라인 주문
결제 후 기다리면 매장에서 제품 수령

인점까지 각 업체의 핵심 상품을 한 번에 고를 수 있는 HDS(하이브리드 디스카운트스토어)이다. 꼭 필요한 만큼 조금씩 사는 1인가구뿐 아니라 박스 단위의 저렴한 대용량 상품을 선호하는 자영업자 고객까지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홈플러스의 신개념 대형마트 모델이기도 하다.

홈플러스 스페셜에서는 대용량 상품과 초특가 상품을 늘리면서 창고형 할인점의 구색은 갖추면서도 종전의 소용량 상품을 함께 판매한다. 이에 따라 매대 위쪽에는 종전 날개나 소량 묶음 상품을, 아래쪽에는 대용량 상품이나 홈플러스 스페셜 단독 소싱 상품들을 진열해 고객이 고를 수 있게 했다. 대부분 상품을 박스 단위 진열(RRP) 또는 팔레트 진열 방식으로 바꾸고, 박스나 팔레트는 완전히 빌 때까지 교체하지 않도록 해 점포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줄였다.

롯데하이마트는 최근 온·오프라인 결합형 매장인 '옴니스토어'를 3호점(수원롯데몰점)까지 열었다. '옴니스토어'는 매장에 진열되지 않은 상품을 매장 안에서 태블릿으로 검색, 구매할 수 있는 '옴니존'을 매장에 마련한 곳이다. 매장을 방문했다가 원하는 제품을 찾지 못하면 '옴니존'에 비치된 태블릿을 이용하면 된다. 태블릿에 설치된 전용 앱을 실행하면 매장에 진열되지 않은 약 11만여 개의 제품들을 검색, 구매할 수 있다. 검색한 제품은 그 자리에서 결제하면 주문 번호가 주어지고, 잠시 후 주문 번호가 계산대 안내 화면에 표시되면 구매할 상품을 바로 가져갈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종전에 아예 없던 새로운 콘셉트의 매장을 만든다는 게 어렵기도 하고 리스크도 크다"며 "아예 이미 여러 매장에서 검증된 장점을 취해 결합하는 방식의 매장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사무직은 '해방감' 유통가 '주52시간' 명암 판매직은 '박탈감'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지 20여 일이 지난 가운데 유통가 현장의 분위기는 엇갈리고 있다. 사무직군의 경우 근로 단축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는 반면, 쇼핑물과 아웃렛 등 매장 판매직군은 상대적인 박탈감에 힘들어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사무직군의 주 52시간 근무는 직원끼리 눈치 보기 바쁘던 시행 초기보다 많이 개선된 상태다. 식품업체 사무직으로 근무 중인 A 씨는 이제 5시 퇴근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그는 "4시 반에 타 부서에서 요청 온 업무량이 많을 경우 야근 대신 다음 날로 넘기겠다고 보고한다"며 "이런 분위기가 최근 들어 익숙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야근 대신 칼퇴근이 자리 잡으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선 취미 생활도 관심거리다. 이마트는 19일부터 모집 중인 문화센터 가을학기에 워라벨을 위한 직장인 강좌를 대폭 증설했다. 저녁 강좌를 30% 늘리는 한편 직장인들을 타깃으로 한 이색 취미 강좌와 '워킹 맘 & 대디'를 위한 육아 프로그램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워라벨' 코너를 별도로 구성해 해당 강좌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놓기도 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주 52시간을 맞아 퇴근 이후 저녁 있는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직장인을 위한 취미 및 저녁반 수업 비중을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사무직군의 삶이 이처럼 여유를 찾은 반면, 판매직군은 상황이 다르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 연이은 이슈 속에서 12일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일주일 중



#인사과 **금대리**
업무량 많으면 다음날로 넘기고
문화센터 취미교실 수강 자기 개발
이게 '워라벨'이구나 저녁 있는 삶

#백화점 매장 **추매니저**
휴무일은 오직 설·추석 각 하루씩
근무시간 단축 제도 '그림의 떡'
우울증·스트레스... 기계 같은 삶

단 하루라도 정기휴무일로 지정해 알바비 부담 없이 쉬고 싶다"고 호소하는 한 쇼핑물 판매직의 글이 올라와 4000건이 넘는 공감을 얻기도 했다. 청원 글 속의 상황은 실제 현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시 송파구의 한 백화점에서 의류 판매를 하는 B 씨는 지난해 추석과 설에 각각 하루만 쉬고 근무했다. 그는 "편의점이나 골목시장은 보는 눈이 많아 이슈의 중심이 된다. 하지만 쇼핑물 등의 입점주에 대해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며 "편의점주나 골목상인에 대한 이슈도 중요한 걸 알지만, 우리도 유통법 개정으로 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구리시의 한 아웃렛에서 근무하는 C 씨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이 아웃렛은 한 달에 한 번 휴무하는데, 그는 "한 달에 두 번 쉬고 싶다. 복합몰 규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지만 판매현장은 매출도 안 나오는데 사람만 죽어간다"고 호소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 초에는 한 복합쇼핑몰에서 아동복 매장 매니저가 연중무휴 업무를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주목을 받은 터라 주변의 안타까움은 배가됐다. 앞으로 근로 시간 단축이 확산할수록 업계 종사자 간 심리적인 양극화는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종전의 대형마트 이외에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에 대해서도 월 2회 의무휴업 지정을 골자로 한 유통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다만 7월 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유통법 개정안 통과도 속도를 낼지 주목되고 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성분 따지는 '체크슈머' 증가 나를 위한 투자 '영포티' 약진

상반기 헬스앤뷰티 소비 트렌드

올해 상반기에는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는 체크슈머(Check+Consumer)가 부쩍 증가했으며, 트렌드에 민감한 '영포티(Young forty)'가 새로운 큰손으로 부상했다.

23일 CJ올리브네트웍스가 운영하고 있는 헬스앤뷰티(H&B) 스토어 올리브영이 올 상반기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는 화장품 구매 시에도 화학성분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두드러졌다. 실제로 올리브영에서는 연초부터 '마녀공장', '셀퓨전씨', '이즈엔트리', '아임프롬' 등 '착한 성분'을 앞세운 중소 화장품 브랜드가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자연 유래 성분의 저자극 브랜드로, 이들 상품은 올해 상반기 스킨케어 카테고리에서 작년 하반기에 비해 매출이 200% 신장했다.

특히 아임프롬은 지난달 27일부터 진행된 '즐거운 동행 상품전'에서 대표 상품인 '히니마스크'를 비롯해 '머그워트 에센스', '머그워트 마스크', '볼케이

닉 마스크' 등 4종이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모두 품절되기도 했다. 마녀공장 역시 올리브영 입점 1년도 채 되지 않아 월평균 매출이 초기보다 8배나 늘었다.

더불어 지난해 하반기 생리대 파동 이후 유기농 상품의 약진도 눈에 띄었다.

'젊은 중년'을 의미하는 영포티도 약진했다. 이들은 이전 세대의 '40대'와는 다르게 자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한편 새로운 것에 큰 거부감 없이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 유통업계의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다. 2012년만 해도 올리브영에서 40대 이상 회원 고객의 매출 비중은 전체의 6.8%에 불과했지만, 2년 뒤인 2014년에는 10.9%, 2016년에는 16%에 이어 지난해 18%, 올 상반기에는 20.7%로 뛰어올랐다. 영포티는 비타민이나 네일스티커와 같이 '건강'과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상품에 지갑을 열었다.

특정 상품에 대한 성수기 공식도 깨졌다.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상품의 성수기는 6월, 황사마스크는 4월, 네일스티커는 휴가철인 7~8월에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이다. 하지만 최근 이들 제품의 올해 상반기 매출을 살펴보면, 특별한 시기에 편중되지 않는 '시즌리스(Seasonless)'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정 기자 mj@

Hanmi 한미약품
광고심의필 : 2018-1436-1200

한창 크는 손주들, 텐텐으로 팍팍 밀어주세요!

소트랙
금메달리스트
김아랑

텐텐은 가까운 약국에 있습니다.

성장기, 허약체질 어린이의
성장·발육에 **텐텐**®
추정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청문면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화전도 역시 KB국민은행



여권, 캐리어, 스마트폰... 다 챙겼지?

잠깐, 환전은?

90%까지 환율우대가 된다고!



2018 KB 환전이벤트

CHECK 1. 떠날 때마다 환율우대

Liiv(리브) 환전 이용 시 최대 90% 환율우대
USD 90%, JPY·EUR 80% / 기프트콘·모바일지갑 포함
KB네트워크환전 / KB서울역환전센터 / 외화ATM(USD only) 이용 시
최대 80% 환율우대

CHECK 2. 원하는 곳으로 배달서비스

KB-POST 외화 배달서비스 이용 시
신청금액 관계 없이 배달수수료 전액 면제
이벤트 기간: 2018. 6. 1(금) ~ 8. 31(금) / 배달 가능 지역: 서울 및 경기도 분당

CHECK 3. 바라는 대로 경품추첨

KB 영업점에서 환전한 개인고객 중 추첨을 통해 경품 증정
건당 USD 500\$ 상당액 이상 / 서울역 환전센터 제외
행운상: 국민관광상품권 100만원권(1명) / 힐링상: 모바일 문화상품권 1만원권(100명)
추첨일자: 2018. 9. 11(화) 예정 / 당첨발표: 2018. 9. 14(금) 예정

* 본 이벤트는 KB국민은행의 사정으로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 이벤트 경품은 시장상 동일 금액대의 다른 상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세공과금은 KB국민은행에서 부담합니다.
* Event 3개 대한 추첨은 난수 추출 방식으로 별도 참여 없이 자동으로도 처리되며, 1인당 1회만 응모됩니다.
* 행운상 경품은 당첨자 발표 후 고객님이 환전한 지점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당첨자 발표 이후 2018.10.12(금)까지 경품 수령 거부 또는 연락처 오류로 인한 연락 불가시 당첨 무효 처리되므로 경품 수령을 위한 은행 고객센터의 연락처(휴대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힐링상 경품인 모바일 문화상품권은 별도 통보없이 2018.9.18(화)에 고객님의 휴대폰으로 발송되며 수탁업체(주)쿠쿠마케팅에 고객님의 정보를 제공하고 경품 발송업무를 위탁합니다. [제공범위: 휴대폰번호 / 대상업무: 이벤트 경품 발송]
* 기타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청구직원 또는 스마트상담부 (☎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KB스타뱅킹 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물에 대한 유효기간 2018.8.31 까지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8-0492호(2018.7.16)



“외식의 내식화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제안”

‘연어 스테이크’ 선보인 장영 신세계푸드 마케팅1팀장

요리 번거로움 줄이고 스토리 덧입힌 ‘수산물 HMR’ 노르웨이 리로이 공동개발...수입량 늘어 가격도 적당

“외식의 내식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종합식품 기업이 되겠습니다.”

신세계푸드가 20일 노르웨이 수산물 리로이(LEROY)와 함께 개발한 연어 스테이크를 선보인 날이기도 하다. 신세계푸드는 지난해 수산물 HMR(가정간편식) 브랜드 ‘보노보노’를 론칭한 데 이어 이번 연어 스테이크 출시로 본격적인 수산물 HMR 시장 확보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장영 신세계푸드 마케팅1팀장은 “국내 간편식 시장은 과거 삼각갑으로 대변되던 1세대를 지나 어느덧 4세대로 넘어가고 있다”며 “4세대엔 맛과 품질을 넘어 스토리까지 더해질 필요가 생겼다”고 말했다. 장 팀장은 “스토리란 셰프, 맛집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소비자들이 하여금 외식의 느낌을 가정에서도 느끼게 하려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처럼 ‘외식의 내식화’를 표방하면서

신세계푸드가 선택한 것이 연어다. 장 팀장은 “그간 가정 내에서 수산물은 요리의 번거로움 등 섭취를 방해하는 요인이 있었다”며 “그러나 통계를 보면 한국인들의 수산물 섭취 비중이 세계 평균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수산물 HMR 시장이 아직 자리잡지 않은 상황에서 신세계푸드가 이를 기회로 삼았음을 강조했다.

장 팀장은 “연어는 국내 식문화에서 고등어나 참치 같은 전통 수산물에 비해 선호도에서 밀린다”면서도 “HMR 사업이 계속 트렌드를 쫓는 상황에서 연어는 상대적으로 현대적인 느낌이며, 다양한 요리법을 통한 활용 가치도 높았다”고 답했다.

경제적인 부분도 놓칠 수 없었다. 그는 “현재 어획량을 놓고 보면 잡지는 줄고 연어는 늘고 있다”면서 “수입량이 늘었다는 것은 소비자가 접근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잡치는 어획량이 줄면서 원물가도 오를 추세다. 수입 수산물 중 연어의 수입



장영 신세계푸드 마케팅1팀장이 20일 서울 성수동 신세계푸드 종합식품연구소 올반랩(LAB)에서 신세계푸드의 연어사업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신세계푸드

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2.5%에서 지난해 5.6%까지 올랐다는 점 역시 국내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하고 있다고 장 팀장은 설명했다.

신세계푸드가 손잡은 리로이사는 유럽 지역 9개 공장에서 연어를 가공하고 80여 개국에 수출하는 글로벌 2위 연어 기업인 만큼 국내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장 팀장은 “원물 확보에 있어 훌륭한 파트너사와 함께한다는 것

은 시장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우리의 강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세계푸드는 이번 ‘보노보노 마린네이드 연어 스테이크’ 출시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관련 시장 매출 목표를 1000억 원으로 잡고 있다. 그 첫 단계로 내년까지 용도별, 형태별 연어 가공제품의 라인업을 늘려 현재 300억 원 수준인 연어 매출을 400억 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고대영 기자 kodaee0@

이국종 교수, KT 국가재난안전망 광고모델 출연

아주대학교의료원 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 이국종 교수가 KT 국가재난안전망 광고에 출연, 통신문을 활용한 긴급 구조 상황을 생생하게 전한다.

KT는 해양경찰청, 아주대학교의료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와 함께 국가재난안전망 발전을 위한 TV 광고를 선보였다고 23일 밝혔다. 광고는 이달 초 진행된 ‘해양응급환자 긴급구조 합동훈련’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바다 위 어선의 과열·폭발로 선박 화재 및 중증외상환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재난 신고가 접수되자 KT의 재난안전 플랫폼 비행장비와 카메라가 조난자를 발견하고 해양경찰 컨트롤 타워에 영상을 전달한다. 현장에도



KT 5G 재난안전망 TV광고 스틸컷. 사진제공 KT

착한 해경은 ‘AR(증강현실) 글라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환자 상태를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에서 전달해 함께 부상자를 치료한다. 합동훈련이 있던 날 실제로 응급환자가 발생해 아주대의료원 이국종 교수가 출동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김범근 기자 nova@

롯데홈쇼핑, 첫 임직원 플라마켓...수익금 전액기부

롯데홈쇼핑은 20일 서울 양평동 본사에서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롯데홈쇼핑 플라마켓’(벼룩시장)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감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사내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부터 행사 물품을 취합한 결과 임직원의 기증품, TV

홈쇼핑에서 판매했던 인기 패션, 뷰티, 리빙 상품까지 총 1000여 점이 모아졌다. 행사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 전액은 어려운 환경의 택배기사 자녀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플라마켓”은 물품 마련부터 부스 설치, 판매, 카페테리아 운영까지 롯데홈쇼핑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임직원이 판매자인 동시에 소비자가 되어 의류, 신발, 유아용품, 생활가전 등 다양한 중고 물품을 사고 팔며 소통의 기회를 가졌다. ‘LBL’, ‘아이젤’ 등 자체 기획 브랜드의 재고·반품 상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선보이고 주얼리 등을 싼 가격에 판매해 현장에서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음료, 아이스크림 등을 제공하는 카페테리아 운영, 명품 경매 이벤트, 선물추첨 등 다양한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마련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 조성 KB금융, 서울시에 후원금 6억

KB국민은행은 20일 서울시에 청소년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존’ 조성 후원금 6억 원을 전달했다. (사진)

스트레스 프리존은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에 휴식과 치유, 소통과 놀이 등을 주제로 융합기기와 운동용품, 안락의자 등을 배치해 꾸민 공간이다.

6월 모집공고를 통해 5개 학교가 선정됐으며 국민은행이 리모델링 공사와 필수 기자재 구입을 지원한다. 또 스트레스 자가진단 시스템을 두고 결과에 따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안철우 기자 acw@

인사

- ◆고용노동부 <전보> △장관 비서관 김형광
-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수출가공진흥과장 지정훈 △어선정책팀장 김중모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전우진 △국립수산과학원 윤석홍
-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고희석
- ◆병무청 <고위공무원 승진>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정창근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정복양 <과장급> △혁신행정

담당관 노동엽 △병역조사과장 최구기 △사회복무관리과장 손진길 △병역공개과장 정홍식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관 박희철 <전보> △경남지방병무청장 이계용 △운영지원과장 임태근 △제주지방병무청장 정제원

◆수출입은행 <본부장급 승진> △리스크관리본부장 백남수 △경제협력본부장 김태수 <부서장급> △인사부 이도형 △중소중견금융1부 신유근 △준법감시실 박주찬 △홍보실장 이원규 △구미출장소장 김관 △여수출장소장 심재선 △인사부소속 부장(연수) 엄성용 <부서장급 전보>

△재무관리실장 이상호 △자원금융실장 김용몽 △기업금융2부장 전정범 △중소중견금융1부 김관수 △무역금융실장 이영희 △전대금융실장 정창호 △해양기업금융실장 주상진 △경협총괄부장 홍성훈 △경협사업1부장 류정열 △여신감리실장 손영환 △해외사업개발담당 이태형 △검사부장 정경석 △대구지점장 박상우 △원주출장소장 김수현 △동경사무소장 임재환 △위생사무소장 황기연

◆한국산업단지공단 ◇양무이사 △기업지원본부장 조혜영 △산단혁신본부장 조성태 △개발사업본부장 최수정

부음

▲강종신씨 별세, 김도기(호남매일신문사 부국장)씨 모친상 = 22일, 광주 VIP 장례타운, 발인 24일 오전 10시, 062-521-4444

▲김국희씨 별세, 김상훈(전 서울지방경찰청 총경)씨 부인상, 도환(KBS 스포츠취재부 기자)·지영·남영씨 모친상, 강석현(SK핀크스 대표)·김동조(KIF 팀장)씨 장모상 = 22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4일 오전 7시 40분, 02-2227-7500

▲김동기씨 별세, 한춘수(다소조경산업 대표)·박성원(KB증권 기업금융본부 전무)·박남진·노왕성(티엔정보기술 근무)·황은범(대한병원협회 총무국장)씨

장인상 = 21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발인 24일 오전 7시, 070-7816-0253

▲김종우씨 별세, 김도일(연남뉴스그라픽뉴스팀 차장대우)·선아(종로중앙새마을금고 과장)씨 부친상, 조경환(OBS 경영지원팀장)씨 장인상 = 22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4일 오전 8시, 02-2227-7602

▲백영자씨 별세, 박상돈(전 국회의원)씨 부인상 = 22일, 천안하늘공원 장례식장, 발인 24일 오전 7시 30분, 041-553-8000

▲이말주씨 별세, 변동기(울산지방경찰청 강력수사대장 경정)씨 모친상 = 21일, 울산 구모닝병원, 발인 24일 오전 7시, 052-256-7444

www.childfund.or.kr

놀이를 다시 보자!

놀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꿈을 찾아 이루게 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놀이의 가치를 다시 볼 때입니다

후원문의 1588-1940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놀이 환경 개선과 놀 권리 증진 사업을 통해 놀이의 가치를 다시 보게 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공병호의 독서산책

와키 교코 '선긋기의 기술'

"인간관계를 지혜롭게 이끌도록 돕는 책." 와키 교코가 쓴 '선긋기의 기술' (알에이치코리아)은 직장 내 혹은 가족 내 인간관계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저자는 도쿄대 경제학부를 졸업한 이후 여러 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다. 주변의 도움으로 개인적 고민거리를 말끔히 해결하는 데 성과를 거둔 다음 지금은 강의와 코칭을 병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누구든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체험과 내용이 담겼다. 한국사회는 인간관계에 관한 한 개입이 비교적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개인주의가 발달하지 않은 탓에 남의 일과 자기 일에 대한 구분이 모호한 점이 큰 이유일 것이다. 따라서 인간관계 때문에 속앓이를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상당 수준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선택이 모두에게 가능한 일은 아니다. 완벽한 수준은 아닐지라도 자신과 타인 사이에 선을 분명히 긋는 일을 행하지 않으면 인간관계에서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직장 내 인간관계로 고민하고 있다면 저자의 직장 내 선긋기에 대한 견해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상사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겠다고 나 그를 변화시키겠다는 욕심을 버리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그와 나 사이에 거리를 얼마나 둘지, 어떻게 선을 그을지 결정하는 것뿐임을 명심하세요." 그렇다면 고압적 상사와의 사이에 어떻게 선을 긋는 것이 좋을까. "하나 는 사회적 가면이라 할 수 있는 사

인간관계는 결국 자신과의 관계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데, 이때도 개입에 익숙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은 어렵다. 저자는 인간관계의 해결책을 타인이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에서 찾으라고 조언한다. 이처럼 명료한 인간관계의 원칙이 불필요한 갈등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 익숙지 못해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 저자가 말하려는 요지는 7개 장으로 구성된 책의 소제목 몇 가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 '가족과 연인관계 조금 멀리 선을 그어도 괜찮아' '친구 관계 선을 넘어오지 않도록' '직장 내 인간관계 2개의 선을 그어라' 등이 다. 선을 잘 그을 수 있다면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책의 핵심 메시지는 '남 중심 선택'으로부터 '나 중심 선택'으로 삶의 무게중심을 이동시키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혹은

회적인 선(상사는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고 느낄 거예요), 다른 하나는 심리적인 선(내 마음 속에서 상사는 남보다 못한 존재죠)입니다." 선긋기에 익숙한 사람은 자신이 개입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스스로 정하는 데 익숙하다. 어느 정도 타인의 일에 무덤덤하게 대하는 것이 좋는데, 유독 그런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다. 특히 가족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 부모나 형제의 개입에 끊임 없이 시달리는 사람이라면 대화나 편지로 불개입의 중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개입에 대한 최소한의 선을 긋고 이를 알리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인간관계를 원활히 하는 데 어느 곳에서나 통할 왕도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긋기는 기본적인 원칙을 준수하려는 노력만으로도 괜찮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선긋기'라는 매력적인 제목이 독자들의 눈길을 끄는 책이다.



김성희의 인문명영

CEO리더십연구소장

휴가, 비워서 채워 오라

라는 점에서다. 길에서 밀리고, 사람에게 치여 방전하는 것도, 휴가에도 회사 메일을 켜며 공간 이동만 해 묶여 있는 누전도 진정한 의미의 휴가는 아니다. 휴가의 진정한 의미는 일의 쉼표, 삶의 지표를 위한 충전에 있다. 한자 휴(休)를 살펴보자. 쉼(休)은 사람 인(人)과 나무 목(木), 글자 그대로 사람이 나무 그늘 밑에 가서 쉬는 모습이다. "휴"라는 발음 자체가 육체와 마음을 이완하고 날숨을 내뿜는 여유로움을 담고 있다. 겨울 가(假)는 날 일(日)과 빌릴 가(假)가 합쳐진 글자이다. 날, 즉 시간을 빌리는 것이다. 겨울을 얻어 지낸다는 뜻이다. 휴가의 참의미는 스스로에게 겨울을 주어 여유를 가지는 계기로 삼는 데 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대표적인 여가예찬론자다. 여가는 삶의 궁극적 목표이고 인간은 여가를 지낼 때 가장 참되게 사는 것이라고 설파했다. 그는 "일은 여가를 위한 도구일 뿐이다. 여가를 제대로 사용하는 능력은 모든 생활의 기초다. 시민들에게 여가 사

용법을 훈련시키지 않는 정치가는 비난받아 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로마시대 시인 오비디우스는 "여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낸다"고 강조했다. 공부하는 장소인 학교(school)는 라틴어 스콜라(schola)에서 유래했다. 스콜라라는 뜻, 여가, 자유시간이라는 뜻이다. 여가를 통해 '인생이란 무엇인가, 신이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같은 삶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이다. 여가와 놀이가 나뉘고 게으름의 '우려 대상'으로 여겨진 것은 종교개혁 이후다. 노동은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라는 청교도적 직업관이 널리 전파됐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여가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우려와 회의를 표하게 된 것도 그 영향이다. 적절한 휴가는 효과성 면에서 창조력과 몰입도를 증가시킨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론 프리드만(Ron Friedman) 박사는 '휴가의 구체적인 효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휴가 기간의 재충

전 경험은 우리에게 집중력, 정신의 명료성을 갖다 주고 통찰력을 높여준다. 휴가 때 교외나 외국으로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은 참신한 관점과 창조적 해결책을 찾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획기적 아이디어는 사무실 안의 좁은 칸막이 안에서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며 만들어지지 않는다. 해변을 유유히 산책할 때 오히려 창조적 발상은 가능하다." 미국의 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만족스런 휴가를 다녀온 이들 중 70% 이상이 일에 만족한 반면 휴가를 갔다 오지 못한 사람은 46%만이 만족도를 보여 현격한 차이가 났다. 미국의 일부 회사는 자율 휴가는 물론 휴가 기간에 회사 이메일 체크나 전화 연락을 하면 휴가비를 전액 반환하는 내규까지 만들어 공공 이동만 한 채 일을 하는 워케이션(work+vacation)을 강제 금지한 곳도 있다고 한다. 열심히 일한 당신, 방전도 누전도 하지 말고 충전의 기회로 활용하라. 떠나지만 말고 비워라, 쉬어라.



짜증과 역정(逆情)

송영무 국방장관이 '마린은'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유족들께서 의견 문제에 있어 흡족하지 못해 짜증이 나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비난이 일자 사과 발언을 하였다. 국어사전은 짜증을 '마음에 맞지 아니하여 발각 역정을 내는 것, 또는 그런 성미'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풀이로 보자면 짜증과 역정은 사실상 같은 말이다. 역정은 한자로 '逆情'이라고 쓰며 각 글자는 '거스를 역', '뜻 정'이라고 훈독한다. 글자대로 풀이하자면 '뜻을 거스름'인데 국어사전은 '몹시 언짢거나 못마땅하여서 내는 성'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짜증이 곧 역정이고 역정이 곧 짜증인 것이다. 송영무 장관의 '짜증' 발언은 기실 "유족들이 의견 문제에 흡족하지 못하여 역정을 낸 것"에 다름이 아니다. 따라서 송영무 장관이 '짜증'이라는 말 대신 '역정'이라는 단

어를 사용했다면 것처럼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같은 뜻의 말이라도 느낌이 완전히 다르게 들리는 경우가 많다. 소화기관인 위(胃)의 순우리말이 '밥통'이라 해서 의사가 노인 환자를 향해 "할아버지 밥통에 문제가 생겼어요"라고 말한다면 환자나 환자 가족들의 기분이 결코 좋지 않을 것이다. '농아(聾啞)'가 귀머거리(聾:귀머거리 농)와 병어리(啞:병어리 아)를 뜻하는 말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농아'나 '청각장애'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자꾸 '귀머거리', '병

어리' 하고 부르면 그 보호자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남녀 성기를 뜻하는 '자'와 '남'으로 시작하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다. 비록 순우리말이긴 하지만 그 말을 대놓고 사용하지 않고 한자어인 '성기(生殖器)', '생식기(生殖器)'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어감이 편이하기 때문이다.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한자의 의미와 역할을 애써 부정할 필요는 없다. 뜻 글자와 소리글자의 장점을 다 누릴 수 있는 큰 복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온라인 모처럼 이재명·은수미, 조폭연루설 파문... "눈 가리고 아웅 식 해명은 안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조폭 연루설이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이하 그알) 방송 이후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21일 방송된 '그알'에서는 이 지사가 2007년 인권변호사로 일하던 시절 성남의 폭력조직 국제마피아와 61명이 검거된 사건에서 2명의 피고인에 대한 변론을 맡아 2차례 법정에서 출석했다는 내용 등을 내보냈다. 또한 국제마피아와 조직원 A 씨가 설립한 코마트레이드가 자격이 없었지만, 성남시로부터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돼 이 지사와 A 씨가 기념촬영을 했고, 다른 조직원은 이 지사를 포함한 정치인들의 선거운동에 참여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 같은 의혹에 "조폭이 아닌데 억울하게 구속됐다"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와 무죄 변론을 요청해 수임한 것"이라며 "그알" 측이 이를 무시하고 오로지 '인권변호사가 조폭 사건을 수임했다'라는 점만 부각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조직폭력배이거나 부도덕한 사람인 걸 알았다면 결코 함께 사진을 찍는 일은 없었을 것이며, 제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알"은 6·13 지방선거 기간에 국제마피아 출신 사업가가 은 시장에게 운전기사와 차량유지비 등을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

했다. 이에 대해 은 시장 측은 "해당 운전기사는 자원봉사 차원에서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네티즌은 "이런 내용이 진실이라면 두 사람 모두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아이디 '1109****'는 "이재명 지사와 은수미 시장은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 식 해명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아이디 'dig1****'은 "의혹만 제기할 것이 아니라 결정적 내용의 '그알' 후속 보도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만일 증거 없는 의혹에 그친다면 '그알'도 이재명 지사·은수미 시장 측과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할 수도..."라고 했다. 이재명 기자 ljj0403@

Advertisement for itowelmall.co.kr featuring various towels and the text '아이타올(주) Made in Korea www.itowelmall.co.kr 대표번호 02) 755-1091'.

데스크칼럼



신동민 정치경제부장 직무대행

공무원 사회 변화 없는 규제개혁은 '공염불'

각종 경제지표가 하향세를 나타내며 규제 개혁이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정권마다 규제 개혁을 부르짖으며 공무원들을 뒤달리고 있지만, 하나를 없애면 두 개가 더 생기는 규제 개혁의 악습이 반복되고 있다.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규제 개혁이 답답하다"고 토로하며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사상 처음으로 회의 당일 연기하는 초강수를 뒀을까.

하지만 공무원 사회는 문 대통령의 초강수에도 앞장서 규제개혁안을 내놓지 못하고 서로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고 한다. 하나의 규제를 완화하면 다른 이익단체의 피해나 밥그릇이 달린 경우가 많다. 그동안 진통을 겪어온 규제 대부분이 이처럼 이익단체나 부처 밥그릇과 연관이 있어 쉽게 규제개혁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규제 완화 후 피해를 뵈는 민원이 제기되면 감사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예도 많아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실제 모 부처 국장은 규제 개혁

에 앞장섰다가 투서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결국 형사재판까지 넘어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미 진급은 물 건너갔다는 것이 해당 부처 공무원들의 시각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제주도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규제 개혁과 관련해 "공무원 때문에 규제 개혁이 안 된다고 비판하지만,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규제를 완화하면 감사를 받는 등 불이익이 따르니까"며 "규제 개혁을 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사실상 경제단체의 수장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상의 회장으로 서한 이번 박 회장의 발언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혁신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할 때 공무원에 대해 문제가 있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말은 수도 없이 나왔지만, 규제 완화로 피해를 본 이익단체가 정치권이나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결국 그 책임은 담당 공무원이 지는 형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부처 공무원들의 얘기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

되는 감사에 자유로울 수 있는 공무원이 몇 명이 되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한다.

정권에 한 번 찍힌 부처나 규제 개혁을 위임받은 공기업은 정권 초기 6개월가량 감사원에 탈탈 털리면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한다. 결국 하나의 규제를 풀면 그 규제에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지만,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어서 정권 초기 감사원이 성과를 내려고 작심하고 그 책임을 물으면 파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최근 문 대통령이 첫 규제혁신 현장 행보로 찾아가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소아당뇨 환자 어머니인 김미영 씨를 만나 안타까워한 사연은 규제 개혁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문 정부는 홍보하고 있다. 김 씨는 소아당뇨 환자가 하루에 열 번 이상 바늘로 피를 뽑아 혈당을 체크해야 하는데, 10살 된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라서 수술을 끝까지 피할 수 없게 됐다. 김 씨는 이 혈당측정기를 구매해 다른 환자들에게도 소개해 주고 '소프트웨어 기술자'라는 경력을 살려 이 측정기가 측정 한 데이터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해 주는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들어 다른 환자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해 7차례 조사를 받았고 결국 검찰로 넘겨졌지만, 검찰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풀려났다.

문제는 문 대통령이 대표적인 규제 적폐 사례로 꼽았지만 만일 담당 공무원이 다른 혈당측정기 업체의 문제 제기에도 가만히 있었다면 분명 직무유기로 처벌을 받거나 사안이 경미하다면 경고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무인편의점 약품 영업판매나 원격 의료진료 등 대한약사회나 대한의사협회의 협선 이익단체가 정치권과 결부해 반대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과감하게 규제 개혁을 풀었을 때 나타난 작은 부작용에 대해 감사원은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까. 당연히 그 공무원이 고스란히 모든 책임을 안고 갈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공무원 사회의 과감한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부르짖는 정권의 규제 개혁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조남호의 중구난방 산업2부 차장



국민 편 가르느 최저임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삶의 질을 위해 '무소'한다고 주장하는 쪽과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들며 어떻게든 인상을 낮추거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쪽으로 갈린다.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인상을 논하는 시기가 되면 대한민국이 둘로 분열한다.

새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해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올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했고,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이 현장에 적용되면서 경제·사회 전반에 몰가 인상이나 일자리 감소 등 다양한 부작용들이 조금씩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공약 달성을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했고, 결국 올해보다 10.9% 더 올리는 것으로 밀어붙였다. 2년 사이에 30% 가까이 올리는 셈이다. 정부가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에 목매는 것은 저소득자의 늘어나는 소득이 소비 증가로 이어져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는 소득주도 성장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부의 이상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최근까지 각종 생필품 가격 인상이 잇따르면서 오히려 서민의 생활고를 가중하고 있다.

일자리라는 또 어떠한가. 정부는 작년 말 올해 취업자 증가 전망치를 지난해 수준인 32만 명으로 잡았으나, 실제 늘어난 취업자가 최근 5개월 연속 10만 명대를 밑돌자 전망치를 절반 조금 넘는 18만 명으로 대폭 낮췄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과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 환경 변화가 있는 것 외에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크게 작용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업계의 반발도 예년보다 거세다. 그도 그럴 것이 최저임금 인상의 전체 조건은 증가 소득분의 소비 전환인데, 매출은 늘지 않고 인건비만 급증하니 사업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경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에 각종 소상공인 단체들이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만들어 단체 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 역시 변화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5%가 최저임금 인상이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긍정적인 영향을 예상한 응답자는 31%였다.

앞서 지난해 7월 최저임금 인상 후 응답자의 45%가 긍정적 영향, 28%가 부정적 영향을 전망한 것과 올해 2월 응답자 41%가 긍정적, 40%가 부정적 영향으로 팽팽했던 것과 비교해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응답자가 갈수록 더 커지는 것은 몰가 인상과 일자리 감소 등 국민이 각종 부작용을 경험한 영향이 클 것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공약에 대한 청사진만 내세웠을 뿐, 그에 수반하는 어려움에 대한 고지는 없었다.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이 상황을 숙고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한 편의점업계 관계자의 이야기다. 최저임금 인상이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정부는 국민을 둘로 가르고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만 사과할 것이 아니라, 정책 시행 후 따라올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손해만 강요해서는 안 되며, 그렇게 해서 풀릴 문제 역시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객석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경제를 살리는 '에너지 전환'

작년 6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서 '탈원전·탈석탄을 통한 국가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공식 천명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민 대다수(84.6%)는 이러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 선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석탄화력발전량은 전년 대비 11.4%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 설비용량은 2017년 36.97기와트(GW)에서 2022년 42.0GW로 오히려 증가할 예정이다.

더구나 최근 국내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고용 증가 규모는 예상과 큰 차이를 보이며 저조한 모습이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가 역전된 이후 국내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면서 자본 유출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경제가 이 모양인데 한기하게 에너지 전환 타령이냐"는 비판이 쏟아져 나올 법하다. 그러나 왜곡된 에너지 산업의 구조를 바로잡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에너지원 간의 상대가격을 조정하는 것이다. 현행 발전단가에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과 같은 외부성(externality)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외부성이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편익이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부는 과세를 통해 이러한 외부성을 통제할 수 있다. 석탄과 원자력처럼 외부성이 큰 에너지원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면 탈석탄, 탈원전은 정부의 명령이 아니라 시장의 명령으로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걷은 세금을 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에너지 효율 향상 등에 사용하면 에너지 전환은 경제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자수첩

정수천 사회경제부/int1000@



정치권 겨누는 드루킹 특검

쓴살같다. '드루킹 특검'이 수사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남은 1차 수사 기간은 한 달 남짓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눈에 띄는 실적은 나오지 않고 있다.

특검에 출석하는 피의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꼭 다문 채 도망치듯 조사실에 향한다. 아무리 질문을 던져도 고개 한 번 끄덕이는 것을 보기 어렵다. 한 소환자는 취재진이 물린 것을 보고 다급하게 계단으로 올라가다 포기하고 승강기 버튼을 눌렀다. 승강기가 내려오는 동안 묵묵히 승강기 문을 노려보는 모습이 답답하면서도 헛웃음이 나왔다. 과연 이들이 특검에게 사실대로 털어놓고 협조할까.

특검이 맡은 임무는 크게 댓글 조작의 실제 규명과 정치권 연루 의혹 수사 등이 다. 댓글 조작은 제쳐 두더라도 정치권을 향한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특검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핵심 멤버인 도모 변호사를 구속하려 했으나 기각됐다. 도 씨는 노회찬 정의

당 원내대표 측에 정치 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어서 구속될 경우 특검의 정치권을 향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는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관으로 추천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첫 구속수사가 무산되면서 다소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특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송인배 대통령정부비서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 주요 대상자 소환에도 여전히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주요 대상자의 소환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이지만, 거론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관계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수사 첫날 허 특검은 "이 사건은 표적수사도 아니고, 청부수사도 아니다. 저희는 인적·물적인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의혹과 연루된 인물의 배경에 영향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드루킹과 관련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것은 국민이 가장 바라는 일이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이유

힘겨운 삶에 지친 이들을 위한 철학 처방전

오키다 다카시 지음 | 홍성민 옮김

가혹한 시련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힘겨운 삶에 지친 이들을 위한 철학 처방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철학이란,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인생 속에만 있다”

쇼펜하우어, 헤르만 헤세, 조르주 상드, 장 자크 루소, 비트겐슈타인...

역사 속 철학자와 문학가의 삶뿐만 아니라 정신과 의사인 저자의 풍부한 임상 경험을 토대로 엮어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사람들 이야기

오키다 다카시 지음 | 홍성민 옮김 | 15,000원

www.etoday.co.kr |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 대표전화 (02)799-2600 | 팩스 (02)784-1003



청년 일자리 살리고
청년 농업인 창업 컨설팅 / 교육, 자금 및 판로지원



금융생활 살리고
첨단 모바일 금융 플랫폼 / 통합 금융 서비스 제공



지역경제 살리고
전국 2,200여 개 해나로마트 /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지금 농협은



농가소득 높이고
영농지재 가격인하 / 영농기술 향상 및 수출지원



먹는 즐거움 높이고
품질개량을 통한 품질향상 /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지원 및 유통



농업가치 높이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 마을 가꾸기 / 판스테이디움 육성

농촌행복도 국민행복도

살리고 높이고

농협은 다양한 농업·농촌 지원사업과 고객 서비스로
농촌도 국민의 삶도 더욱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더욱 행복해지도록 농협이 함께하겠습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합리적 가격, 우아한 외관...작은 SUV '큰 인기'

지프 '올 뉴 컴패스' 10년 만의 모델 풀체인지



BMW '뉴 X2' 뒤집힌 그릴 디자인 첫 적용



볼보 '더 뉴 XC40' 제네바모터쇼 '올해의 차' 선정



재규어 'E-페이스' 1000대 국내 사전계약 달성



수입차 '콤팩트 시장' 격전 예고

수입 콤팩트 SUV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소형과 준중형을 아우르는 콤팩트 SUV는 디자인과 실용성,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등을 앞세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피아트크라이슬러코리아(FCA코리아)와 BMW, 볼보자동차, 재규어랜드로버 등이 '격전'을 예고하고 있다.

FCA코리아의 SUV 전문 브랜드 지프는 17일 콤팩트 SUV 올 뉴 컴패스를 공식 출시했다. 신형 컴패스는 소형 SUV 레니게이트와 중형 SUV 체로키의 중간급 모델로 브랜드 라인업을 완성하는 모델이다. 올 뉴 컴패스는 2007년 1세대 모델 탄생 후 10년 만에 완전변경(풀체인지)을 단행했다.

신형 컴패스는 연비 효율성이 향상된 파워트레인, 지프 고유의 디자인, 고품격 온로드 주행 성능, 혁신적인 최첨단 편의-안전사양 등이 특징이다. 외관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지프의 상징인 7슬롯 그릴에 유광 블랙 컬러를 적용해 지프의 헤리티지와 고급스러움을 강조했다. 지프 액티브 드라이브와 셀렉 터레인 시스템 등 사륜구동 성능이 향상된 점도 눈에 띈다.

파블로 로소 FCA코리아 사장은 "컴패스가 풀체인지를 거치면서 보다 완전한 도심형 콤팩트 SUV로 거듭났다"며 "도시에 거주하지만 도전 정신을 바탕

으로 대담하고 특별한 라이프스타일을 꿈꾸는 소비자에게 적합한 모델"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프는 가장 작은 라인업인 레니게이트의 부분변경(페이스리프트) 모델도 올 하반기에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BMW는 하반기에 SUV인 X시리즈의 새로운 라인업인 '뉴 X2'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고객층은 도시에 거주하며 디지털 라이프를 즐기는 젊은 소비자다.

뉴 X2는 기존 X시리즈의 강인한 인상에 쿠페 스타일의 스포티함과 우아함을 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뉴 X2는 사각형의 휠 아치, 인상적인 배기 테일 파이프와 측면 디자인, 우아한 루프라인과 슬림한 창문 디자인이 특징이다.

위아래로 뒤집힌 키드니 그릴이 눈에 띈다. 뉴 X2는 아래쪽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디자인을 최초로 채택했다. 키드니 그릴을 헤드라이트보다 아래로 배치해 역동성을 강조했다. C필러에 위치한 BMW 로고는 2000 CS와 3.0 CSL 등 가장 인기 있는 클래식 BMW 쿠페의 디테일에서 영감을 얻었다.

뉴 X2의 파워트레인은 3가지 버전의 트윈터보 엔진으로 개발됐다. 1개의 가솔린 모델과 2개의 디젤 엔진으로 구성됐다. 4기통 엔진 등 새로운 파워트레인이 내년 추가 예정이다.

볼보코리아는 지난달 출시한 콤팩트 SUV 더 뉴

XC40로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더 뉴 XC40은 3월 제네바 모터쇼에서 '2018 유럽 올해의 차'에 선정된 바 있다.

볼보코리아 관계자는 "스웨디시 미니멀리스트를 표방하는 더 뉴 XC40은 필요한 것만 집중하는 현대인에게 최적화된 차량"이라며 "콤팩트 SUV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볼보자동차는 아심차 더 뉴 XC40에 소형차 전용 모듈 플랫폼인 'CMA(Compact Modular

Architecture)'를 최초 적용했다. 반자를 주행 가능한 파일럿 어시스트 시스템과 지능형 안전시스템인 인텔리세이프 등 다양한 최신 기술도 대거 채택했다.

더 뉴 XC40의 고객 인도는 다음달 초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5월 말부터 시작한 이 차의 사전계약 누적 대수는 1000대를 돌파했다.

재규어랜드로버는 4월 최초의 콤팩트 SUV인 E-페이스를 선보였다. E-페이스는 스포츠카의 디자인과 성능을 갖춘 '사륜구동' 콤팩트 SUV다.

재규어 E-페이스는 5월 말부터 사전계약을 시작해 1000대 이상의 계약을 달성하는 등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차는 재규어랜드로버가 직접 설계한 인제니움 가솔린 엔진을 탑재했다. 최고출력은 249마력, 최대토크는 37.2kg·m에 달한다.

재규어랜드로버 관계자는 "인텔리전트 4륜구동 시스템을 적용해 다양한 기후와 지형에서 고른 접지력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타보니

콤팩트 맞나요? 의외로 넉넉

지프 '올 뉴 컴패스'

오토·눈길·모래·진흙 사륜구동 4종 모드 정속성 아쉽지만 험로서도 안정적 주행

콤팩트라고 하기엔 넉넉하다. 오프로드에 강하다고 해서 외관이 투박하지 않다. 10년 만에 완전변경(풀체인지) 모델로 돌아온 지프의 콤팩트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올 뉴 컴패스'에 대한 이야기다. 최근 수입차 업체들이 앞다퉈 콤팩트 SUV를 내놓자, 지프도 새롭게 변경된 모델로 참전을 선언했다.

FCA코리아의 지프 올 뉴 컴패스를 타고 파주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자유로를 거쳐 북부기상관 축소까지 약 60km를 달려왔다. 도로 주행을 끝난 뒤에는 FCA코리아 측이 마련한 험로 드라이빙을 체험하는 등 제대로 된 시승을 진행해 봤다.

우선 이 모델의 외관은 '콤팩트'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당당하고 압도적이다. 그러면서도 공기역학적인 차체 라인과 스타일링으로 젊고 현대적인 감각을 뽐냈다. 전면부는 지프 특유의 세븐 슬롯 그릴과 시그니처 LED 라인에 주간주행등이 포함된 바이제 HID 헤드램프, 감성 색상의 헤드램프 베젤이 조화를 이뤘다.

이번 모델은 피아트 500X, 지프 레니게이트 등 FCA그룹 내 소형 SUV와 플랫폼을 함께 사용한다. 올 뉴 컴패스는 길이 4400mm, 너비 1820mm, 높이 1650mm로 레니게이트보다 길이와 너비는 확대하고 높이는 낮췄다. 휠 베이스 역시 2636mm로 66mm 더 길어 실내 공간도 보다 넓었다.

특히 실내는 실용적으로 꾸몄다. 가죽 스티어링 휠에는 각종 버튼을 조작하기 쉽게 배치했다. 노트북 등을 넣을 수 있는 1열 좌석 아래 공간 포켓 등을 구성해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했다. 리미티드 트림은 2열을 40:20:40으로, 론지튜드 60:40으로 분할할 수 있어 활용 가치가 크다.

올 뉴 컴패스에는 2.4ℓ 14 타이거스크 멀티에어2



험로 주행 중인 지프 '올 뉴 컴패스'.

가솔린 엔진이 장착돼 최고출력 175마력, 최대 토크 23.4kg·m의 힘을 낸다. 고속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밟자 속도가 단번에 올라가는 감을 느끼지는 못했지만, 무게감 있고 안정감 있게 치고 나가는 게 인상적이었다. 신호 대기 중이거나, 잠시 정차 중일 때 자동으로 '스톱 앤드 스타트' 기능이 작동돼 연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줬다. 다만, 가솔린 심장을 장착하고도 다소 거슬렸던 엔진음 탓에 정속성은 아쉬웠다.

지프 고유의 사륜구동 시스템은 합격점을 주기에 충분했다. 사륜구동 시스템은 △오토 △눈길 △모래 △진흙 등 4가지 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 온로드 구간에서 오토 모드로 주행을 했는데, 사륜구동 시스템을 작동하기 전보다 승차감이 훨씬 부드러웠다. 오프로드 구간에서는 두각을 나타냈다. 올 뉴 컴패스는 미끄럼 도로 요철, 도강 구간, 오르막, 흙-자갈 등 장애물 구간 등을 거침없이 통과했다.

복합연비는 ℓ당 9.3km였지만 시승 후 계기판에 찍힌 것은 7.6km였다.

이 모델은 론지튜드 2.4, 리미티드 2.4 모델 등 두 가지 트림으로 운영된다. 론지튜드 2.4 모델은 3990만 원, 리미티드 2.4 모델은 4340만 원이다.

양용비 기자 dragonfly@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7-04981호(2017.11.29~2018.11.14)

KYOBŌ 교보증권

현명한 소비습관 슈퍼그레이트 WIN.K

교보증권 WIN.K 체크카드

교육비 할인 서비스

국내 전 학원업종 10% 청구 할인
교보문고, 핫팩스, 영풍문고,
반디엔터테인먼트 및 어학시험 응시료
10% 청구할인

주유 할인 서비스

SK주유소,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리터당 100원 할인

check

WIN.K

KYOBŌ 교보증권

부가 상품 서비스

스타벅스, 커피빈, 투썸플레이스 등
CU, GS25, 세븐일레븐 등 10% 청구할인
SKT, KT, LG+ 이동통신요금 10% 할인

CMA 금융서비스혜택

RP에 자동투자해서 수익 제공
주식거래까지 One Stop 서비스

연회비 없이 누리는 신용카드급 혜택
(전월 실적 기준 총축시, 월 최대 4만 3천원 캐시백)

- 1 Win.K 설치 후 비대면계좌개설 시작
- 2 본인인증 Win.K 체크카드 선택
- 3 주소 등 정보입력
- 4 신분증 촬영
- 5 계좌인증
- 6 신청완료 카드배송시작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비대면을 통한 당사 최초 계좌개설 고객의 경우 MTS 매매 시 0.014%의 주식매매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체크카드 관련 상세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또는 소비자지원센터(1544-09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삼성전자



협력업체 자금지원 프로그램 운영

삼성전자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상생펀드 △물대지원펀드 △수출입은행 연계 자금지원 프로그램 △상생결제시스템 등 '협력사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올해 4월 열린 삼성전자와 협력사가 모여 동반성장을 다짐하는 '상생협력데이' 행사에서 반도체·벤처 부문장 김기남(오른쪽 두 번째) 삼성전자 사장과 IT·모바일 부문장 고동진(오른쪽 첫 번째) 삼성전자 사장과 등 삼성전자가 경영진이 우수 협력사 기술 전시회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2005년부터 국내 최초로 거래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2011년부터는 대금지급 횟수를 월 2회에서 4회로 변경하는 등 대금지급 조건을 개선했으며, 설·추석 등 명절 시 구매대금을 조기에 지급하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에 도움을 주고 있다.

2010년부터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과 함께 1조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자금이 필요한 협력사에 기술개발, 설비투자, 운전자금 등을 업체별 최대 90억 원까지 저리로 대출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차 협력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고, 2017년 1·2차 413개사에 8227억 원을 지원했다.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물품대금을 전액 현

금으로 30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는 혁신적 물품대금 지급 프로세스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과 총 5000억 원 규모의 '물대지원펀드'를 조성해 1차 협력사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해의 진출 또는 수출용 자재 납품 중소기업이 수출용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수출입은행 연계 자금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해 2017년 49개사가 2234억 원을 활용했다.

효성



글로벌 판로개척 협력사 경쟁력 쑥

효성의 동반성장 가치는 '공동운명체' 정신이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날로 격화하는 경쟁에서 혼자 힘으로만 살아남기는 매우 어렵다"며 "협력사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효성은 '협력업체의 경쟁력이 곧 효성의 경쟁력'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협력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 시스템, 판로 개척, 재무 분야 개선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효성은 협력업체들의 글로벌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섬유 부문은 국내외 전시회에 협력업체들과 동반 참석, 마케팅과 영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협력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글로벌 시장 판로를 뚫어 주기 위함이다.

작년 10월 중국에서 열린 '인터텍스타일(Intertextile) 상하이 2017' 전시회에서는 18개 협력업체들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부스를 구축하고 공동 마케팅 활동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조 회장이 직접 참석해 협력업체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마케팅을 지원하기도 했다.

효성은 협력업체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매일 협력업체 최고경영자(CEO) 및 책임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품질 및 공정, 안전, 경영, 생산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 위탁 교육이 있다.

아울러 협력업체의 재무 상황 개선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협력업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비 및 설비 도입, 기술 개발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금융권과 '네트워크론' 협약도 체결했다. 네트워크론은 은행과 구매 기업이 협약을 맺고 협력 기업의 납품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선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론 상품이다.



효성은 협력사의 요청에 따라 중전기 제조 공정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창원공장 견학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효성

LG그룹



신기술 협력·교육... 상생 생태계 구축

LG는 협력회사의 지속성장이 LG의 경쟁력이라는 철학으로 상생 생태계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자금 지원, 기술 지원, 신기술 개발 협력, 특허 개방, 판로 개척, 교육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LG는 협력회사의 원활한 경영에 필수적인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6719억 원의 동반성장펀드, 1862억 원 규모의 무이자 직접대출 등 총 8581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 지원금을 운영할 계획이다. 1차 협력회사가 대기업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2·3차 협력회사에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생결제시스템' 운영도 지속 강화한다.

특히 LG전자는 올해 협력회사의 제조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생산라인 자동화,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협력회사는 생산 설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단위 공정들을 효율적으로 자동화하고 공정의 복잡성도 제거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협력회사는 성장의 속도를 높이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또 LG



지난해 'LG전자 협력회 총회'에서 LG전자 대표이사 CEO 조성진 부회장(왼쪽에서 여섯 번째) 등 LG전자 경영진과 주요 협력사 대표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제공 LG그룹

디스플레이, LG화학,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이노텍, LG CNS 등 6개 LG 계열사는 6월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동반성장 지수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로, 대기업의 판로·신기술 개발 지원 등 동반위의 중소기업 체감도조사 점수와 대기업의 하도급 법 준수 등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점수를 합산해 발표한다.

SK그룹



동반성장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 실현

"SK가 보유한 유·무형의 역량이 SK는 물론 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모색하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경영철학인 '사회적 가치 창출'을 실현하기 위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생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SK그룹은 그룹 경영관리 체계인 SKMS(SK Management System)에 '이해관계자의 행복 추구'를 중심으로, '기업은 이해관계자 간 행복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SK가 협력사와의 '상생'을 바라보는 관점도 이러한 경영철학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협력사는 도움이 대상이나 활용의 대상도 아닌 SK와 행복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동반자이므로, SK의 상생 방식 또한 일시적이고 시혜적인 접근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SK그룹은 2005년 '행복동반자 경영' 선언 이후 2006년 '동반성장 아카데미' 시행, 2009년 '동반성장펀드' 발족 등 그룹 차원에서 다양한 상생 노력을 해 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25일 서울 광진구 광장동 SK아카데미에서 열린 'SK 동반성장 CEO 세미나'에서 최광철 SK사회공헌위원장과 2차 협력사 CEO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SK그룹

특히, 2013년에는 동반성장 분야를 특화한 '사회공헌위원회'를 발족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 경영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기존 협력사에 대한 지원을 2·3차 협력사 대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투자에 있어서도 SK그룹은 2·3차 협력사도 동반성장펀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SK는 2009년 1200억 원이었던 이 펀드 규모를 지난해 6200억 원까지 확대했다.

SK그룹은 이와 별도로 계열사별 동반성장펀드 운영도 활성화하고 있다.

한화그룹



매년 2000억 물품대금 현금결제 지원

"빨리 가려면 혼자 가도 되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평소 강조해 온 '함께 멀리' 정신을 기반으로 협력업체와의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을 실행해 오고 있다.

한화그룹의 모태인 ㈜한화는 매해 우수협력사를 초청, 간담회를 열고 협력 회사들의 애로사항을 듣는다. 우수협력회사들에는 매년 2000억 원 이상의 물품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는 지원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물품 대금을 어음이나 현금으로 지급하면 협력사들은 어음 할인 시 이자 등을 부담할 필요가 없어 자금 운용에 큰 도움이 된다. 현재 ㈜한화의 협력사 현금 대금 지급률은 약 80%다. 올해부터는 10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중전 1차 협력사 지원에서 2차, 3차 협력사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오랜 기간 이어온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선금금지급보증, 계약이행보증 등 각종 담보 면제, 동반성장 상생펀드 제공(협력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금융지원제도) 등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화그룹은 협력회사들의 공정개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각 분야 전문가가 협력회사를



㈜한화의 협력회사 공정개선 프로그램 활동 모습. 사진제공 한화그룹

방문해 취약 부분을 상담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활동이다.

㈜한화는 2016년 공정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진단된 취약점을 개선하고자 제일정밀에 자동검사장비 등을 지원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금속관 전용세척기 및 검사공정 자동화 설비를 지원했다.

김홍근 제일정밀 대표는 "㈜한화의 각종 지원을 통해 제조 비용은 감소시키고 품질은 향상시킬 수 있었다"며 "한화와의 거래 관계가 타 공급처와의 거래에도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기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

h point

현대백화점그룹을 있다.

백화점부터 홈쇼핑까지 있다

지금 애플 앱스토어/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하세요

현대자동차그룹



장애인 이동편의 위해 수동휠체어 전동화 추진

현대차그룹은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수동 휠체어의 전동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대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대차그룹 관계자 및 장애인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수동 휠체어 전동화키트 전달식'을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장애인 40명을 포함, 학업과 경제활동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만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130명에게 수동 휠체어 전동화키트를 전달했다.

11년간 현대차그룹은 전국장애인기과의 약 25%(1088곳)를 대상으로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자동출입문, 장애인 화장실, 현관 경사로, 출입구 단차 제거, 긴급 피난 안전설비 등 기관 내 시설물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해왔다. 전동화키트를 활용한 사회공헌 사업은 장애인기관 내 이동 편의 증진 시설개선 사업의 후속 프로젝트다.



현대차그룹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함께 장애인 수동휠체어 전동화키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열린 전동화키트 전달식 모습. 사진제공 현대차

현대차그룹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함께 '수동 휠체어 전동화키트 보급 사업'을, 사단법인 그린라이트와 함께 '수동 휠체어 전동화키트 세어링사업' 등 총 2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수동 휠체어에 부착해 전동 휠체어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전동화키트는 모터, 배터리, 조종장치로 구성돼 있다. 차량에 적재 가능한 수동 휠체어의 장점과

사용자의 체력적 부담이 덜한 전동 휠체어의 장점을 모두 갖추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장애인들의 경제 및 사회 활동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전동화키트 보급 사업을 기획했으며, 용도와 생활 환경에 따라 핸들형, 조이스틱형 등의 전동화키트를 3년간 총 400대 지원할 예정이다.

포스코



대학생 봉사단 '비욘드' 8개월 봉사 대장정 돌입

포스코 대학생 봉사단 '비욘드(Beyond)' 12기가 광양제철소 본부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갖고 이달부터 8개월간의 국내외 봉사 대장정을 시작했다.

비욘드는 포스코가 나눔을 실천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2007년 국내 기업 최초로 창단한 대학생 봉사단이다. 현재까지 1100여 명의 비욘드 단원이 포항, 광양, 인천 등 국내 지역사회를 비롯해 인도 델리, 태국 춘부리-리용, 인도네시아 반둥-보고르, 베트남 티엔장성-봉타우성 등에서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270여 개의 안락한 주거공간을 선사했다.

비욘드 12기 단원들은 지역과 나이, 학교와 전공을 불문하고 전국 60개 대학에 재학 중인 다양한 배경을 가진 100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8개월 동안 국내외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국내에서는 화재 피해를 입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는 지역사회 이웃을 위해 포스코의 월드프리미엄 제품인 포스맥을 적용한 스틸하우스 건축봉사, 비욘드 단원이 직접 기



포스코 대학생 봉사단 '비욘드' 11기 참가자들이 광양시 옥룡면 스틸하우스 25호 건축봉사 준공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포스코

획하고 실천하는 재능 봉사 등을 펼친다.

포스코는 포스코그룹이 진출한 국내외 지역사회에서 자사 철강 소재와 건축공법을 활용해 주택, 학교 및 다리 등의 사회기반 시설을 건축하는 '포스코 스틸빌리지' 사업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이 활동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사회경제적 기반 구축 및 지역사회의 자립을 도와 현지와 세계에서 우수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인정받고 있다.

포스코 스틸빌리지 사업은 2017년 11월 UN 홈페이지에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인류의 지속가능 도시와 정착지 조성'의 우수 사례로 등재된 데 이어, 2018년 4월 뉴욕에서 열린 '제51차 UN인구개발 위원회'에서 SDGs 선도 모델로 선정 및 공식의견서로 채택돼 전 세계 193개 UN회원국에 모범 사례로 권고됐다.

두산그룹



협력사와 경쟁력 공유 '선순환적 파트너십' 구축

두산의 상생경영은 협력사와 '선순환적 파트너십 구축'을 목표로 한다. 선순환적 파트너십이란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상호 성장의 궤를 함께 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두산은 경쟁력 공유, 기술력 및 재무 지원 등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두산은 협력사 재정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 펀드 조성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과 함께 총 220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를 운용 중이다. 펀드는 중소 협력사에 저렴한 금리로 운영자금을 대출 지원하는 형태로 사용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혁신 운동에 참여하여 2~3차 협력사의 현장혁신 활동 및 ICT스마트공장 구축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3년부터 5년간 매년 10억 원씩 자금을 출연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우수 협력사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지난해 6월 베트남 중동부 중구와 공단에 위치한 현지 법인인 두산비나에서 협력사 대표이사들이 참석한



두산중공업 협력사 베트남 동반진출 상호협력 MOU 체결식 2017. 6. 14 / 두산비나. 사진제공 두산그룹

가운데 베트남 진출을 위한 상호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산중공업은 협력사들이 두산비나가 보유한 공장 부지 일부를 활용해 법인과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행정·재무·경영·인사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두산인프라코어는 협력사 기술개발 지원과 다각적인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으로 협력사 수익 증대와 경쟁력 강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2017년에는 부품 국산화 개발, 신기종 공동 개발, OEM 및 모듈 개발 등 협력사에 237건의 기술개발을 지원했다.

또한 대학 연계 교육을 비롯하여 기관 연계, 채용 예정자 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해 매년 약 100여 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동국제강



창업주 정신 이어받아 3대째 사회공헌 활동 앞장

동국제강은 창업주에서 현재까지 3세대에 걸쳐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함께 나누고 발전하겠다는 경영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동국제강의 창업자 장경호 회장은 1977년 사재 30억 원을 헌납해 불교진흥사업에 기여했고, 장상태 2대 회장은 창업주의 유지를 받들어 송원문화재단을 설립했다. 이러한 사회공헌의 정신은 현재의 장세주 회장과 장세욱 부회장이 이어졌고, 동국제강은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현재 송원문화재단은 장학사업, 불우이웃 지원사업, 문화 및 학술연구 사업 등의 분야에서 매년 10억 원 상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재단 운영에 전인적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 전통을 지키며 그 본연의 의미를 순수하게 이어오고 있다.

송원문화재단의 대표적 활동은 장학사업이다. 동국제강은 미래 가치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공계 대학생 장학사업을 15년째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동국제강의 이공계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등



동국제강은 지난해 11월 아름다운가게 안국점에서 장세욱 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봉사자들이 물품 기증 및 판매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사진제공 동국제강

록금 전액 등 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고, 공장 견학 등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송원문화재단은 설립 취지에 따라 동국제강의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불우이웃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1998년부터 시작된 '홀로 사는 노인 돕기' 및 저소득 가정 돕기 사업은 부산 용호동 일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시작해 현재

는 부산, 인천, 당진 등으로 확대했다.

동국제강은 사회적 기업과의 협력하에 펼치는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2005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아름다운가게'와의 물품 기증 및 판매 봉사가 대표적이다. 회사는 매년 기증된 물품과 판매 수익금 전액을 아름다운가게에 전달해 왔으며, 이 수익금은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국내외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된다.

랜섬웨어 정보센터 www.hauri.co.kr

알려지지 않은 최신 랜섬웨어

바이로봇 Anti-Ransomware

보안취약점을 통해 유입되는 랜섬웨어

바이로봇 APT Shield 2.0

이미 알려진 랜섬웨어 동작 시

바이로봇 7.0

당신의 소중한 파일을 노리는

랜섬웨어

하우리, 바이로봇으로 차단하세요!

수년간 축적된 소중한 데이터를 한 순간에 암호화 시켜버리는 랜섬웨어, 대한민국 대표백신, 바이로봇 솔루션으로 랜섬웨어를 차단하고 소중한 데이터를 지키세요.

(주) 하우리 | 서울시 중로구 율곡로 238 (예일빌딩) 6층 | 대표전화 02-3676-1100

롯데지주



온정 담은 '플레저박스' 소외계층에 3만여개 선물

롯데지주는 2013년부터 세상의 모든 이웃이 즐거워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롯데 플레저박스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롯데 플레저박스 캠페인은 연 4-6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을 선정해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서 작은 기쁨을 줄 수 있는 선물을 담아 전달한다.

저소득층 여학생들에게는 생리대 1년치, 경결제, 핸드크림 등을, 미혼모들에게는 세제, 로션 등 육아용품,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점자도서 등을 담은 식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연말을 맞아 전방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힘쓰고 있는 국군장병을 위해 생활용품과 간식을 담은 플레저박스 3000개를 전달한 바 있다.

4월 25일에는 서울 마곡에 있는 롯데중앙연구소에서 28번째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5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임직원이 참여했으며 성인이 되어 그룹홈(보호가 필요한 소년·소녀 가장들을 소수의 그룹으로 묶어 보호하는 제도)을 떠나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만 20세 이상



롯데는 4월 25일 마곡 롯데중앙연구소에서 '롯데 플레저박스 캠페인'을 진행했다. 50여 명의 자원봉사자 및 임직원이 플레저박스를 만들고 있다. 사진제공 롯데지주

2000명에게 전달할 박스를 만들었다. 플레저박스 캠페인의 특징은 롯데그룹 페이스북 팬들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점이다. 매 회, 지원 대상 및 물품이 정해지면 롯데그룹 페이스북 계정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할 일반인 및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이들과 더불어 임직원, 롯데장학재단 장학생, 롯데 대학생 서포터스 등 50-60명이 힘을 모아 물품을 상

자에 담고 포장 및 배송지원 업무까지 맡는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전달되는 박스는 한 회당 평균 1100여 상자. 2월 3만 500박스를 넘어섰다. 그간 롯데플레저박스 캠페인에 참여한 인원은 1500명에 달한다.

롯데는 이 밖에 육아 환경 개선과 아동들의 행복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해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극복에도 힘을 더하고 있다.

CJ그룹



'프로덕트 101 챌린지' 통해 유망 스타트업 육성

CJ그룹은 유망한 스타트업, 벤처-중소기업 등 작은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CJ그룹은 4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프로덕트 101 챌린지'를 시작했다. CJ ENM의 인기 오디오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의 콘셉트를 차용한 중기 육성 프로그램이다.

'프로덕트 101'은 성장 잠재력을 갖춘 101개의 중소기업을 선정,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유통망 확대 등의 지원을 한 뒤 성과에 따라 최종 11개 기업을 선발한다. CJ그룹은 각 기업의 제품 특성에 따라 적합한 유통채널과 마케팅 전략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멘토링과 마케팅, CJ ENM 오소핑 부문·올리브영 입점까지 지원한다.

최종 톱 11에 선정되면 올리브영 입점, CJ ENM 방송 PPL, SNS와 MCN 채널을 활용한 마케팅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5월 10일까지 진행된 참가 희망 기업 모집에는 약 600개의 작은기업이 지



6월 2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티스타운에서 열린 '프로덕트 101 챌린지 CJ 유통 연합 품평회'에 참가한 한 부티 기업 관계자가 심사위원에게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CJ그룹

원,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CJ그룹은 최종 11개 기업을 선발하는 전 단계로 지난달 25일 CJ 유통 연합 품평회를 진행하고 국내 판로 지원 및 해외 진출 지원 기업 65곳을 선정했다. 1차로 선정된 101개 중 유통·마케팅·무역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86개사가 참가해 자신들의 제품을 선보였다. CJ그룹에서는 유통 계열사 MD, 글로벌 사업 담당자, 미

디어 전문가 30여 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CJ ENM 오소핑 부문의 중소기업 제품 무료방송 '1사 1명품', '1촌 1명품' 코너 10개 △CJ ENM 오소핑 부문 V커머스 6개 △CJ몰 50개 △올리브영 '즐거움동행존'에 10개 기업이 각각 선정돼 이후 상품 보완 과정을 거쳐 입점을 추진한다.

이마트



생필품 지원 60억... 6년째 달리는 '희망배달마차'

이마트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젝트 '희망배달마차'를 통해 희망 나누기에 앞장서고 있다.

희망배달마차는 2012년 4월 17일 지역 저소득가정과 독거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사회 소외계층 생필품 지원을 위해 시작했다. 서울과 경기, 대구, 광주 지역에서 매년 200-300여 차례 운영된다. 특히 민관이 협력해 진행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해 경기, 대구, 광주 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 속한 복지 단체를 통해 신청을 받아 지역을 순회하며 진행하는데, 선정된 지자체는 지원 대상자(약 150명-1회)를 초청하고, 행사 당일 본인에게 필요한 3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해마다 3만여 가구에 10억 원 규모로 지원이 이뤄지며, 6년 동안 모두 20만여 가구에 60억 원가량의 생필품이 지원됐다.

희망배달마차를 통해 봉사에 참여한 인원과 임직원과 고객 주부 봉사단을 포함해



이마트 직원이 '희망배달마차' 식품 나눔 행사에서 시민들이 생필품을 고르는 것을 돕고 있다. 사진제공 이마트

1만3000여명에 달한다. 일반적인 생필품 지원의 경우 정해진 물품을 전달하는 방식인 데 비해, 희망배달마차는 이동식 장터를 열어 수혜자들이 직접 원하는 품목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참여도는 물론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마트의 희망배달마차는 올해도 열심히 달리고 있다. 3월 21일 서울 중곡동을 시작으로 6월 25일까지 50회가량 희망배달마

차 행사를 진행했으며 올 연말까지 약 200회 진행할 계획이다. 올 들어 50회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마트가 희망배달마차를 통해 지원한 금액은 약 2억 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는 지원 품목을 가성비 브랜드 '노브랜드' 상품으로 변경해 수혜자가 선택할 수 있는 품목 수가 30-40%가량 늘어난 수혜자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

KT



'기가 스토리' 해외 오지마을에 ICT 솔루션 전파

KT의 ICT 기반 사회공헌 활동이 해외 곳곳의 소외지역에서도 성공적으로 희망 스토리를 써나가고 있다.

KT의 '기가 스토리'는 기가 인프라에 ICT 솔루션을 적용해 도서, 산간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공유가치 창출 프로젝트다. 방글라데시 기가 아일랜드는 해외 첫 기가 스토리로, 방글라데시 ICT부, 국제이주기구, 한국국제협력단, 현지 비정부 단체 등 민간공공이 힘을 합쳐 지난해 4월 말 출범했다.

오지마을은 기가 스토리를 통해 ICT 솔루션을 도입하며 통신, 교육, 의료, 경제 등 생활 전반이 개선되고 있다. 특히 방글라데시 정부의 국가 개발 정책인 '디지털 방글라데시 2021'에 맞춰 ICT 기반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자생적인 발전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기가 아일랜드로 출범하기 전 모헤시칼리 섬은 인프라가 열악해 인터넷 접속 자체가 어려웠다. 그나마 있던 인터넷의 속도는 0.2Mbps였다. 현재는 KT의 네



5월 10일 방글라데시 모헤시칼리 섬에서 KT가 기가 아일랜드 출범 1주년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가 열린 모헤시칼리 섬 'IT스페이스'에서 주민들이 IT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 KT

트워크 구축과 지원을 통해 최대 100Mbps 속도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KT는 캄보디아에도 ICT 기술을 지원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KT와 캄보디아 우정통신부는 5월 9일 프놈펜 혼센 국립공원에서 공공 와이파이 개통식을 열었다. KT가 캄보디아 우정통신부, 텔레콤 캄보디아와 협력한 이번 프로젝트는 비싼 데이터 요금으로 인

터넷 이용에 제한이 있던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위해 진행했다. 이로써 프놈펜 시내에 위치한 혼센공원과 로열펠리스 공원 일대 등 총 3만7000여 평의 국립공원에 설치된 기가 와이파이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선주 KT 지속가능경영담당장은 "다양한 글로벌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민간사절단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POWERED BY HERITAGE

www.timedaily.co.kr
Almanac 070-7840-1715



마트에 없는 물
TV광고 없는 정수기
영업사원 없는 회사

“물 소문만으로 33년”

오직, 물

한우물

물맛부터 다른 이중전기분해방식의 전해 약알칼리수 - 한우물



최첨단 전자식 냉온 정수기
▶HAN-CH3000S

특성 냉수, 온수 / 색상 블랙, 화이트
| 정수량 4,000L의 뛰어난 필터성능
| 터치 한 번으로 내맘대로 물량 조절
| 세정기능을 통한 최상의 전기분해 유지



따뜻한 물도 바로 직수형 온정수기
▶HAN-EP5100

특성 정수, 온수, 미온수 / 색상 그레이, 레드
| 3단계 온수 기능으로 용도에 맞게
| 최소 소비전력으로 전기료도 슬림
| 스마트한 자동세정 기능



간편하게 바로 직수형 정수기
▶HAN-EP5000

특성 정수 / 색상 레드, 스카이블루
| 작고 아담한 사이즈에 성능은 그대로
| 최소 소비전력으로 전기료도 슬림
| 스마트한 자동세정 기능

건강한 물, 한우물 「나처럼」 무료 시음 이벤트!

무료 시음을 신청하시면 건강한 약알칼리 음료 나처럼 500ml 4병을 택배를 통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은 고객센터 1588-4804로 연락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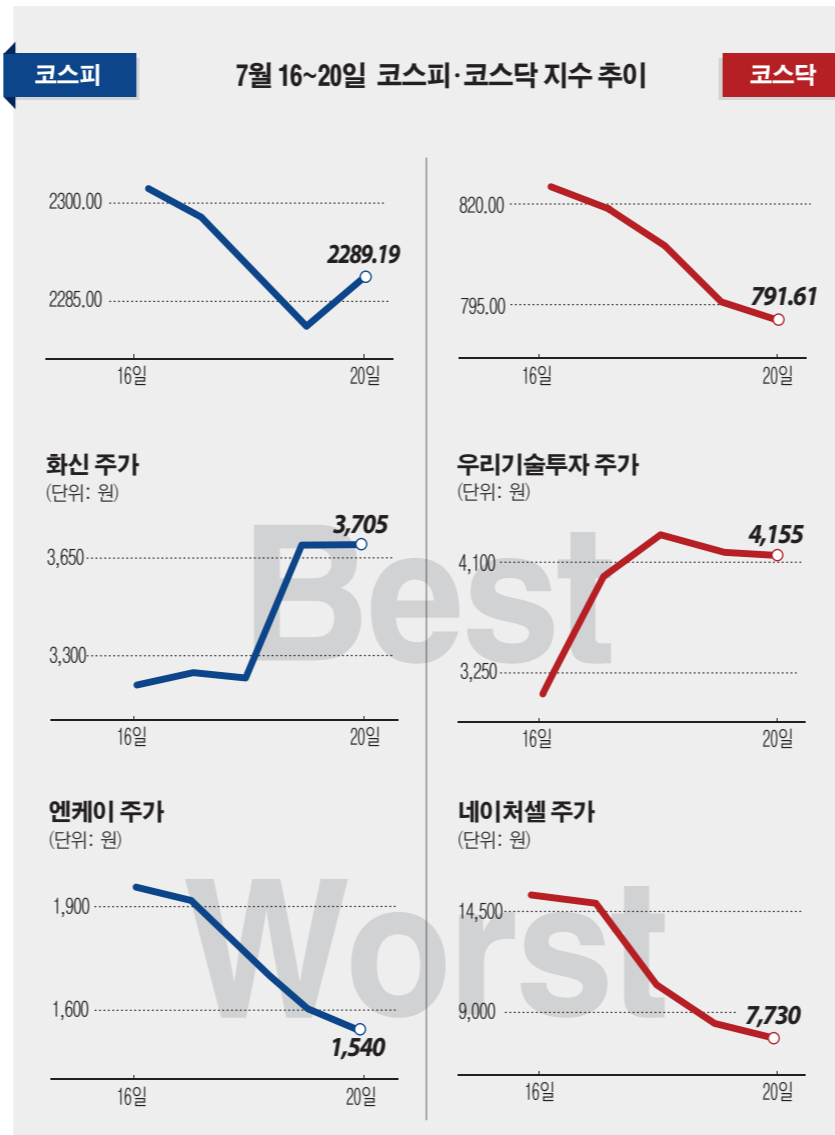


‘특허취득’ 화신 16% · ‘비트코인 급등’ 우리기술투자 36% ↑

7월 셋째 주(7월 16~20일) 코스피지수는 전주보다 21.71(0.94%)포인트 하락한 2289.19에 마감했다. 지난 주 초에는 제철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청문회가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한 미국 경기 개선 기대감에 미국, 유럽 등이 중시 강세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중국 중시 부진과 위안화 절하 영향에 국내 증시는 약세가 지속됐다. 개인은 6068억 원을 사들였고,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1128억 원, 4313억 원을 내다뺐었다.

베스트&워스트 7월 16~20일

지난주(7월 16~20일) 코스닥지수는 전주 대비 36.29포인트(4.38%) 하락한 791.61에 거래를 마쳤다. 리정찬 네이버 대표이사 구속 소식에 이어 신라전선의 임상 실패와 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 루머 등으로 바이오 업종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지수가 급락했다. 이 기간 개인은 4141억 원을 사들였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644억 원, 1070억 원 순매도했다.



코스피 상승 10종목

종목명	20일 시가 총액	7월 16일	7월 20일	증가	증가률
화신	129	3,200	3,705	15.78	15.78%
신일산업	118	1,450	1,660	14.48	14.48%
울촌화학	365	12,850	14,700	14.40	14.40%
아이티스	66	2,460	2,805	14.02	14.02%
동성제약	569	20,200	23,000	13.86	13.86%
SK증권	399	1,105	1,245	12.67	12.67%
LG디스플레이	7,836	19,600	21,900	11.73	11.73%
골드브릿지증권	167	2,955	3,290	11.34	11.34%
참엔지니어링	91	1,665	1,850	11.11	11.11%
페이퍼코리아	72	1,210	1,320	9.09	9.09%

코스닥 상승 10종목

종목명	20일 시가 총액	7월 16일	7월 20일	증가	증가률
우리기술투자	349	3,050	4,155	36.23	36.23%
네오인텍(클로저지)	89	1,910	2,510	31.41	31.41%
케이씨에스	64	4,120	5,370	30.34	30.34%
뉴프라이드	314	3,045	3,950	29.72	29.72%
파인텍	41	3,140	4,025	28.18	28.18%
3S	148	2,615	3,330	27.34	27.34%
팬스타엔터프라이즈	59	1,135	1,445	27.31	27.31%
힐스	99	14,950	18,900	26.42	26.42%
대우위니아	132	2,995	3,670	22.54	22.54%
켄트로스	110	3,805	4,580	20.37	20.37%

코스피 하락 10종목

종목명	20일 시가 총액	7월 16일	7월 20일	감소	감소률
엔케이	123	2,015	1,540	-23.57	-23.57%
GS리테일	2,291	38,300	29,750	-22.32	-22.32%
한성기업	43	9,980	7,780	-22.04	-22.04%
현대시멘트	726	54,500	43,300	-20.55	-20.55%
효성	620	56,500	44,950	-20.44	-20.44%
SIMPAC	196	3,650	3,000	-17.81	-17.81%
아세아시멘트	456	142,000	117,000	-16.81	-16.81%
남광토건	143	17,550	14,600	-16.81	-16.81%
BGF리테일	2,584	179,500	149,500	-16.71	-16.71%
효성엔텍	900	247,500	208,000	-15.96	-15.96%

코스닥 하락 10종목

종목명	20일 시가 총액	7월 16일	7월 20일	감소	감소률
네이처셀	410	15,550	7,730	-50.29	-50.29%
한송네오텍	68	2,995	1,895	-36.73	-36.73%
테루스	113	2,005	1,315	-34.41	-34.41%
인터볼스	30	4,885	3,425	-29.89	-29.89%
SBS콘텐츠허브	110	6,770	5,130	-24.22	-24.22%
JTC	340	12,600	9,720	-22.86	-22.86%
CJ ENM	4,892	286,400	223,100	-22.10	-22.10%
베일	108	18,950	14,900	-21.37	-21.37%
지엘팜텍	177	6,930	5,500	-20.63	-20.63%
유에스티	172	9,440	7,530	-20.23	-20.23%

◇화신 15.78% ↑ - 차량용 로어암 특허 취득·개소세 인하 영향 = 지난주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기업은 화신으로 전주 대비 15.78% 올랐다. 화신은 자동차용 새시와 보디파트의 주요 부품 납품하는 업체로 현대·기아차가 주요 고객사다. 화신은 차량용 로어암과 용접부재용 가변 지지장치, 차량용 서스펜션장치 등에 대한 특허를 각각 취득했다고 17일 공시했다. 또 18일 정부가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를 1.5% 포인트 감면한다고 밝힌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엔케이, 김무성 딸 허위취업 보도에 23.57% ↓ = 지난주 코스피 시장에서는 엔케이가 전주 대비 23.57% 하락하며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18일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허위 취업으로 5년여간 4억 원에 이르는 급여를 받았다는 보도에 급락했다. 엔케이의 최대주주 박운소 회장은 김무성 딸의 사아버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4분기 실적 개선 전망도 영향을 미쳤다. 소현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3분기에는 LCD TV의 가격이 반등하면서 영업적자가 650억 원으로 줄고 4분기에는 49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흑자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 증시 부진 위안화 절하... 外人 1128억·개인 4313억 매도 에어컨 생산 신일산업 무더위 제품 수요 급증 '52주 신고가' '김무성 딸 허위취업' 엔케이 24% 급락...한성기업 22% 폭

동성제약은 체지방 치료제 개발 기대감에 전주 대비 13.86% 올랐다. 동성제약은 최근 2세대 광과민제 포도론의 임상 2상 시험 결과 논문용 유명 학회지에 투고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SK증권은 최대주주 변경안이 증권선물위원회 통과했다는 소식에 전주 대비 12.67% 상승했다. 증권위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SK증권의 인수 주체인 사모펀드 전문운용사 J&W파트너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안건을 의결했다. 25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마·중 무역분쟁의 반사이익 기대감에 상승세였던 한성기업은 차익 실현에 전주 대비 22.04% 내렸다. 분할 후 재상장한 효성과 효성엔텍도 전주 대비 각각 20.44%, 15.96% 하락했다. GS리테일과 BGF리테일 등 편의점주는 산업의 성장세 둔화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전주 대비 각각 22.32%, 16.71% 하락했다. 이지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점당 구매 건수는 여전히 감소 추세”라며 “향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점주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총:십억 원, 증가:원, 주가동향률:%)

* 자료:애프앤케이

풍부한 현실의 사례를 통해 손쉽게 경제학을 이해한다!

이준구 교수의 열린경제학

- 담배, 비싸면 과연 끊을까?
- 1인당 국민소득이 높다고 더 잘산다고 할 수 있을까?
- 소득이 커지면 행복감도 따라서 더 커질까?
- 세계 각국의 빅맥 가격을 매년 비교해 보는 이유는?
- 같은 보고 중과차를 사가가 겁나는 이유는?
- 누가 증산증이고, 누가 빈곤증일까?

이준구 지음 | 584 쪽
문우사 | 값 20,000원

2017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휩쓸고 간 미국 사회, 승자독식정치를 통한 감세정책은 과연 경제 살리기에 성공했는가?

미국의 신자유주의 실험

이준구 지음 | 288 쪽 | 문우사
값 18,000원

적지만 부유한 나라 싱가포르, 그 성공의 비결은 무엇일까?

싱가포르 다시 보기

싱가포르의 정치·행정 시스템 분석

고길근 지음 | 372 쪽 | 문우사
값 15,000원

“역시, 역사는 강자의 편이었다” 팔순을 바라보는 학자가 역사와 세상을 바라본 평가이다!!

역사는 강자의 편이었다

힘 있는 자의 말은 언제나 정의의(?)로 포장되어 있다. 반면, 힘 없는 민족과 개인은 비극의 삶이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힘이 지배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힘을 길러야 한다. 힘의 역사를 쓰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 해법은 무엇일까? 인생의 경험을 통해, 역사 속 지도자를 통해 그 답을 제시한다.

김종재 지음 | 304쪽 | 마인드맵
값 15,000원

치마폭에 흐르는 중국역사

중국 왕제들은 여성들과 어떻게 지냈을까? 그리고 황후의 역할은 어느 정도였을까?

치마폭에 흐르는 중국역사

짜오지옌민 지음 | 광복선 옮김
382 쪽 | 마인드맵 | 값 16,000원

2000년 동안 이어진 화교들의 삶정리

화교 역사·문화 답사기 1

김동하 지음 | 194 쪽 | 마인드맵
값 12,000원

문의 : 070-7550-3758 www.mindtap.co.kr

솔고바이오 '암 검사 용기' 내달 양산

'알렘생명과학' 개발 국내 첫 1등급 의료기기 허가 진행 3년간 500억 매출 기대... 성병 등 체외진단 키트도 신형 간암 등 10여개 암 검진 시스템 하반기 미국 수출 예정

솔고바이오가 최근 자본 100%를 인수한 알렘생명과학이 현재 식약처에 국내 최초 1등급 의료기기인 암 검사용기를 비롯해 4개의 체외진단용 키트와 시스템 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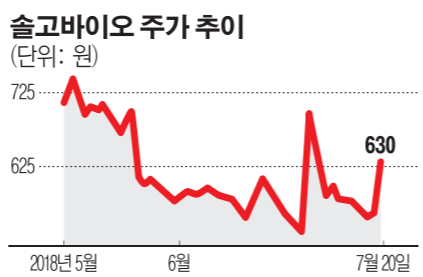
특히 알렘생명과학은 간암부터 폐암과 자궁경부암(HPV) 등 10여 개의 암 검진이 가능한 암 세포 검사시스템에 대해 미국 FDA 허가를 진행 중이며 올 하반기부터는 미국 수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23일 솔고바이오 관계자는 "체외진단용 키트 및 시스템 중 PRP시스템, HPV(자궁 경부암)·STD(성병) Brush를 비롯해 암 검사용 조직보존용 용기 등 4종의 식약처 허가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

다.

문재인 대통령은 안전성 우려가 적은 의료기술 인·허가 제도를 '사전규제' 방식에서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체외진단기기의 시장진입 기간을 390일에서 80일로 대폭 단축키로 했다. 이에 주식시장에서는 메디프론, 팜스웰바이오 등 진단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

솔고바이오는 6월 체외진단 장비 및 검사기구 등 독자적인 특허 기술과 제조력을 보유한 알렘생명과학의 자본 100%를 인수했다. 알렘생명과학은 체외진단 및 검사장비 전문기업으로 혈소판보존혈장(PRP) 시스템 및 PRP Kit, LBC 시스



템(자동엑상 암 세포검사 장비), 암조직 검사용 티슈보틀(Tissue Bottle), 자궁경부암 및 성병(HPV&STD) 진단용 DNA 튜브(Tube) 등 제품 관련 16종의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암 검사용기를 개발했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억 개가 소모되는 암 검사용기(Biopsy container)에 조직을 넣을 때 포름알데히드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조직 보존, 고정 및 수송이 용이한 특수 설계된 용기다.

회사 관계자는 "암 검사용 조직보존용 용기는 국내 최초로 1등급 의료기기 허가

를 진행 중"이라며 "8월부터 제품 양산을 시작해 3년간 500억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솔고바이오의 CE인증은 완료한 액상세포 검사시스템에 대해서도 미국 FDA 허가를 진행 중이다. 검진 오류가 거의 없는 우수한 최신 검진 기계로 간암부터 폐암에 이르기까지 10개 종류의 암 세포 검사가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자궁경부암(HPV) 검진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US cytology market by application에 따르면 전 세계 조직학 및 세포학 시장 규모는 2016년 86억 달러(약 9조7000억 원)로 추산되며 암 발병률과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증가하여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솔고바이오 관계자는 "액상세포 검사 시스템에 대한 FDA 허가를 진행 중"이라며 "올 하반기부터 미국 수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엔텔스, 부산·세종 '스마트시티' 참여

SKT와 부산 시범사업 플랫폼 공급

엔텔스가 부산스마트시티 시범사업에 유일하게 플랫폼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수원시 스마트시티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는 이 회사는 부산과 세종에 새롭게 구축되는 스마트시티 사업에도 뛰어든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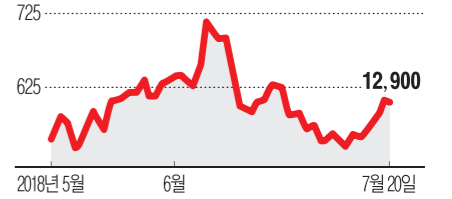
23일 회사 관계자는 "부산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에 SKT와 손잡고 일부를 진행했다"면서 "당사는 플랫폼으로는 유일하게 들어간 회사"라고 밝혔다. 이어 "부산과 세종 등 스마트 사업 입찰에도 뛰어들어 기회가 많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엔텔스는 2000년 설립된 유무선 통신 서비스 운영지원시스템 개발 업체다. 주로 SK텔레콤, KT, LG U+ 등 통신사와 사물인터넷(IoT) 사업자를 위한 솔루션과 플랫폼 제공, 클라우드 기반의 빅데이터 사업 등을 영위한다.

앞서 SK텔레콤과 부산시는 2015년부터 해운대구에 IoT 기반의 스마트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국제표준 IoT 기반의 개방형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구축해 스마트 가로등 및 주차, 횡단보도, 사회적 약자 안심서비스, 스마트 미야방지 서비스 등을 선보였다.

최근 엔텔스는 수원 스마트 시티 사업에도 참가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 엔텔스는 시스템 개발을 맡고, 수원시는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한다. 지난날에는 수원시와 함께 미국 'GCTC(Global City Team Challenge)-글로벌 테크 잼 2018(Global Tech Jam)'에 참가해 'IoT 기반 스마트 빌딩 에너지 관리 플랫폼'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엔텔스 추가 추이 (단위: 원)



비즈로테크, 유니시스템과 비즈로시스, 누리텔레콤 등과 함께 스마트시티 관련주로 분류되는 엔텔스는 최근에는 SK텔레콤과 '인프라솔루션 ICT 데이터망 기술지원용역'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리딩투자증권은 엔텔스에 대해 "5G 상용화에 따라 올해 신규 통신장비에 통합 운영 지원 솔루션을 공급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스마트에너지, 스마트팩토리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전날 시범도시 총괄계획가(MP)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부산 및 세종시 스마트시티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1조7000억 원(세종 7000억 원·부산 1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해 세종에는 건물과 토지의 용도제한을 없애고 공유차량 개념을 도입한 스마트시티가 도입된다. 또 부산 에코델타시티에선 스마트시티 최신 기술이 구현돼 산업과 일자리를 선도한다.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한 국가 시범도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자유롭게 실증하고 미래 스마트시티 선도모델로 만들기 위해 정부가 1월부터 추진해온 혁신 성장사업 중 하나다. **남주현 기자 joo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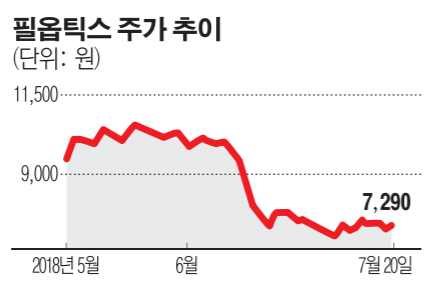
필옵틱스, 美 법인 설립... "신개념 3D 검사 기술 개발"

디스플레이·2차전지 분야 활용

필옵틱스가 3D 검사 기술 개발을 위해 미국 법인을 설립한다.

이차전지 및 OLED 레이저 공정 장비 선도기업 필옵틱스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미국 법인 설립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필옵틱스는 3차원 측정 기술과 인공지능 기반의 검사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주요 사업인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의 결합 검사에 적용 가능한 측정 시스템을 최근 개발해 고객사와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시스템은 수백 나노(nm) 깊이의 결합 검출에 성공하고 병렬처리 기술을 통한 빠른 검사가 가능하게 돼 이를 상업화하고 현재의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100% 자본 출자하는 종속회사로 미국 내에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라는 것이

회사 측의 입장이다.

필옵틱스 관계자는 "신개념 3D 검사 기술은 주요 사업인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에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징(Advanced Package) 분야의 나노급 결합 검사 등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이라며 "이미 여러 데모 및 기술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기술 개발 완료와 상업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연구 분야에 필요한 핵심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미국 내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필옵틱스가 현재 개발 중인 3차원 검사 기술은 3차원 형상 측정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반도체 웨이퍼, 디스플레이, 자동차, 배터리, 금형의 표면 결함을 검사하는 장비 등에 적용될 수 있다. 기존 검사기에서는 검출이 어려운 나노급 높이의 결함을 빠른 속도로 검출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한편, 필옵틱스는 지난해 6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회사다. 주력사업은 OLED 디스플레이용 레이저 커팅(Laser Cutting) 및 리프트 오프(Lift-Off) 장비, 전기자동차 이차전지용 레이저 가공장비, PCB(인쇄회로기판)·TSP(터치스크린 패널)용 노광장비 등과 같은 광학기반 자동차 시스템과 장비다. **남주현 기자 jooh@**

인트로메딕,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 구축

한화건설 계열 에코이엔오와 협약

인트로메딕이 전국 하수처리장 내 발전 설비 구축과 운영 사업 모델을 개발·추진할 예정이다.

23일 인트로메딕에 따르면 한화건설 계열의 환경시설 운영 전문기업 에코이엔오, 발전 관련 설비 설계 및 감리 전문기업 태양기술과 컨소시엄 형태의 추

진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인트로메딕 관계자는 "최근 친환경에너지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정부 정책을 감안할 때 본 사업의 전망이 매우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협의체를 통해 약 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용 시설물 내 태양광 발전설비의 구축과 운영 사업'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계획

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시장 조성이 무르익은 단계는 아니지만 미래를 내다본 투자로 시장을 선점한다는 점에서 이번 수주 참여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업은 기존 하수처리장 내에 태양광 패널을 장착하고 발전된 전기를 송전하는 매전이 기본 수익모델이다. 대도시 지역 특성상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용 시설물과 부지를 활용하는 '도시형 태양광 발전 실증형 시설'이다. **설경진 기자 skj78@**

한편 에코이엔오는 환경시설 운영 전문기업으로 한화건설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6곳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23곳의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다.

에코이엔오 관계자는 "동일한 현장에서 하수처리 및 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은 또 다른 신규사업을 창출할 수 있고 운영 관리 효율을 통한 수익 제고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신사업"이라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빙뽀 지수 (2018년 7월 23일, 08:00, KST)

종목명	가격(원)	전일대비(%)	종목명	가격(원)	전일대비(%)
비트코인캐시	924,000	-13,000 (1.5%)	모네로	157,700	-5,700 (3.8%)
리플	538	-10 (1.9%)	비트코인골드	35,300	750 (2.2%)
라이트코인	97,800	-1,800 (1.9%)	이더리움 클래식	19,600	-460 (2.5%)
대시	294,100	-10,300 (3.5%)	퀀텀	9,670	-50 (0.5%)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COVERSTORY 새로운 어른들의 어휘문화

PART1. 시니어의 화법이 중요한 이유 -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PART2. 목소리 & 제스처 코칭 - 유려한 문장 없이 유연하게 말하는 법
 PART3. 사춘기 손주 상담 Q&A - 손주가 갑자기 비속어를 쓴다면?
 PART4. 무심코 나오는 한마디, 다들 - 이혼을 부르는 말, 행복을 키우는 말
 PART5. 상대에 따른 애도 방법 - 꼭 알아야 할 위로의 언어
 PART6. 나는 통하는 사람일까? - 소통일까? 불통일까?
 PART7. 세대공감 언어 - 신조어 총정리 나의 신조어 레벨은?

제2인생 태양광 발전, 내 노후 밝게 비출까?
 노후에 안정적 수익을 원하는 시니어 사이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말 그대로 태양광을 통해 얻은 전기를 팔아 수익을 올리는 사업. 초기 자본만 확보되면 육체적인 노동력에 의존하지 않고 장기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많은 시니어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업계에선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며 투자자를 설득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은 시니어에게 정말 괜찮은 노후 대비 사업일까?

'숲속의 서점' 옹골찬 귀촌 프로젝트
 산과 산 사이 도로를 줄기차게 달려도 산 첩첩. 깊고 후미진 산간이다. 도로를 버리고 접어든 비좁은 산길 끝자락 산 중턱, 후련하게 탁 트인 거기에 나무선(57) 씨의 거처가 있다. 풍경이 절반은 산, 절반은 하늘. 또는 절반은 청풍, 절반은 구름. 절친 자리처럼 개활하니 명당이었다.

박원식이 만난 귀촌 사람들

신라보와 만난 사람들
 인생 마지막 성장의 기회 '죽음' 이화여자대학교 최은식 교수
 "짜릿함의 철학은 비움과 받아들임이요" 소병진 국가무형문화재 소극장 보유자
 신과 노래와 함께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 가기 자연인, 신현대 싱어송라이터협창

브라보 근력운동 캠페인
 '브라보 체조'와 함께 백세 인생 내 손으로
 시니어의 평소생활은 늘 조심조심으로 일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두르다가, 격렬하게 움직이다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낙상을 조심하는 생활뿐만 아니라 평소 균형감각을 키울 수 있는 운동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070 시니어 세대를 위한 '브라보 체조'는 균형감각의 활성화까지 고려했습니다. 아울러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도 제작해 담았습니다.

올여름엔 카테일
 두 가지 이상의 음료를 섞어 만든 카테일은 그 종류만 해도 수십, 수백 가지가 된다. 다양한 맛과 향, 청량감을 자랑하는 카테일과 함께 시원한 여름밤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 김행수(60), 조미옥(50) 두 동년기자가 '루이스 바에' 방문했다.

레시피
 고풍한 예방에 좋은 멥게비빔밥, 양파 피클

부치지 못한 편지
 시인 이상규 "내 죽거든 태워서 물치 바다에나 뿌려다오"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광고문의 Tel. 02-799-2698 Fax. 02-799-2666 독자 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부천의 중심, 중동의 자부심을 누리다

힐스테이트 중동

부천시청역,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중동역과 나란히!
힐스테이트 중동에서 부천의 중심, 그 이상의 가치를 기대하십시오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

계약금 분납제 (1차 5% + 2차 5%)	전매제한 6개월	유주택자 1순위 가능	중도금 이자후불제 (아파트)
-------------------------------	-------------	----------------	-----------------------



7 부천시청

**견본주택
개관중**

아파트
특별공급
7월 24일(화)
1순위
7월 26일(목)

오피스텔
청약접수
7월 26일(목)

상업시설
청약신청금 납부
7월 23일(월) ~ 24일(화)
청약서류 접수
7월 24일(화)
청약신청금은 지정계좌로 입금하셔야 하며
계좌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아파트·오피스텔·상업시설 동시분양
■ 아파트 84㎡ / 104㎡ / 137㎡ / 141㎡ 999세대
■ 오피스텔 84㎡ 49실 ■ 상업시설 243호실

032) 324-4999



견본주택 : 경기도 부천시 상동 529-51번지
현장 : 경기도 부천시 중동 1154번지 일원

www.hillstate-hec.co.kr/jd

* 본 홍보물의 이미지는 소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교통시설 및 주변 현황은 안착기 및 청약사이에 따라 변경 및 취소 가능하며 해당 안착기 및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서는 시행사나 시공사에 이의 제기도 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회 조망은 각 동별 층별, 호수별로 상이하므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하자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적용됩니다. * 모집공고 이후 관계법령, 조례, 각종 계획의 변경 등으로 도시·건축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